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XNNA

Suffering prepares ordinary people for extraordinary lives.

- C. S. Lewis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삶을
준비시킨다.

- C. S. 루이스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May 2023, 5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②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③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④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⑤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06

2023 JAN
금요일 · Fri

빛의 자녀의 삶

Life as children
of light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4

5

맥집기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와 같이 교회도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새 284장(통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가운데 빠져

묵상본문

통독본문

2 에베소서 5:3-14

3 에베소서 5장

6

3음행과 온갖 더러운 짓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
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혀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
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7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
망하라

12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라

13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
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시리라 하였
느니라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Paul urged people to be imitators of God. As Paul was talking about the holy life of believers, he urged peopl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e urged the church to be holy and blameless.

🎵 The Abundant Love of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5:3-14	Ephesians 5

³ But sexual immorality and all impurity or covetousness must not even be named among you, as is proper among saints.

⁴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r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⁵ For you may be sure of this, that everyone who is sexually immoral or impure, or who is covetous (that is, an idolater), has no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⁶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comes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⁷ Therefore do not become partners with them;

⁸ for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⁹ (for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¹⁰ and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¹¹ Take no part in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instead expose them.

¹² For it is shameful even to speak of the things that they do in secret.

¹³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it becomes visible,

¹⁴ for an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Therefore it says,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무엇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5절)
What did Paul call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v. 5)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fruit of the light?
(v. 9)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S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민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Do Not even Mention the Name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전, 손을 닦고 이야기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벽이나 바닥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손 닦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벽을 쓸거나 바닥에 넘어져 손을 더럽힌 채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수 없고, 다시 손을 닦고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5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마 5:28)라고 하였고,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3절)고 말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12절).

반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며 다시 우상숭배하고, 외인이나 나그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Before giving snacks to children, we usually ask them to wash their hands and urge them, "On your way back from the restroom, come straight back here without touching the wall or the floor." We know clean hands will get dirty again and washing them would be an exercise in futility. Nonetheless some kids wipe the wall with their hands or fall on the floor and get their hands dirty again on their way back. Those children cannot be given the snacks and must wash their hands again.

Paul called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an idolater (v. 5). Jesus said that anyone who looked at a woman lustfully had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Paul said,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v. 3). Don't even think about them or speak about them because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them (v. 12).

On the other hand, we must get out of darkness and walk in the middle of light. As we decid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we will experience the fruit of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fulness and become imitators of God. As we are called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we must live life quite different from our old life. Will you go back to the life of an alien or wayfarer, living with the unbelievers and idolaters? Or do you want to walk in the middle of light with thanksgiving and as heirs to the kingdom of God?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바>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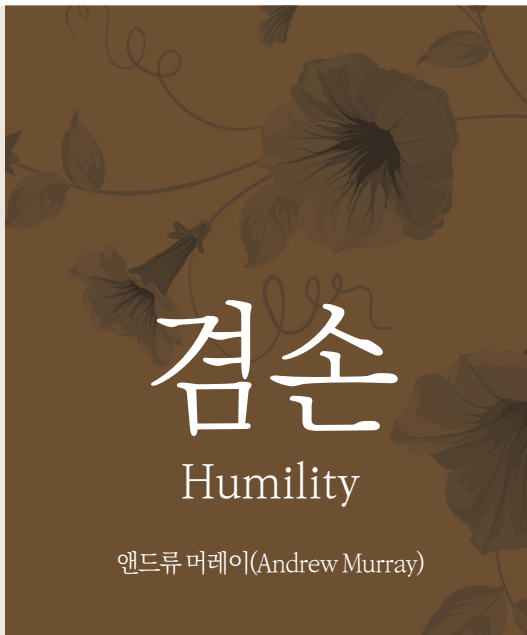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05

[illegible]10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다니엘 Daniel 3장 □	4 다니엘 Daniel 4장 □	5 다니엘 Daniel 5장 □	6 다니엘 Daniel 6장 □
10 다니엘 Daniel 9장 □	11 다니엘 Daniel 10장 □	12 다니엘 Daniel 11장 □	13 다니엘 Daniel 12장 □
17 호세아 Hosea 2:14-23 □	18 호세아 Hosea 3장 □	19 호세아 Hosea 4장 □	20 호세아 Hosea 5장 □
24 호세아 Hosea 8장 □	25 호세아 Hosea 9장 □	26 호세아 Hosea 10장 □	27 호세아 Hosea 11장 □
31 호세아 Hosea 14장 □			
		04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Why _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 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 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5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겸손

세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거하실 대만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겸손 역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교만합니다. 겸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겸손도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롬 5:20)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의 노력들은 주님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악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는 죄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구원(everlasting redemption)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entirely new life)을 얻으셨습니다. 이 생명은 인간들과 교통하심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충만하게 해주는 주님의 권능 안에서 인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입어 인간의 몸으로 땅에서 할 수 없으셨던 일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같이 생활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숨 쉬시며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당신의 소유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진 준비와 확신 그리고 갈망과 소망의 깨달음(awakening of desire and hope)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transformation)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생애와 서신들을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들어있는 교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지금부터 생각하며 묵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축복과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하고 있지만 자신들 안에 진정한 기쁨과 예수님의 겸손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승리와 축복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며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간에 오늘 당신에게 겸손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임을 믿은 깊은 확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주님의 가장 큰 영광, 제일 으뜸가는 계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겸손이 결핍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은사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안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겸손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여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다니엘서

묵시으로써 다니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적 세계의 현실을 보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영적인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독자들의 영적 각성을 유도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덤멜로우(J.R. Dummelow)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다니엘서의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정교한 문학적 형식 아래 다음과 같은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유대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도 항상 그의 주관하에 있어 왔다는 것, 인간이 통치하는 제국의 계승이 그에게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 잠시 동안은 압제자의 자만심과 포악함을 용납하지만 만 마침내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곧 그의 왕국이 임하여 영원하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과 지조를 바친다면 영생으로 인도될 것이며 영원히 영광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바벨론 왕국 때로부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의 전개를 펼치고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참고 기다릴 때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배경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다니엘 1:1과 에스겔 14:14,20; 28:3 등에 근거하여 다니엘이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그가 체험한 일들과 본(see) 환상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시아 왕이 주전 609년에 이집트 왕 느고에게 브짓도에서 살해된 이후 주변의 강대국들(이집트, 바벨론)에게 농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참고 대하 36장). 다니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저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혹독한 심판을 받아 단계적으로 뿌리째 뽑혀 가던 시기인 주전 605-587년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대를 포함한 바벨론 군은 이집트-아시리아 연합군과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근동의 통치권을 놓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은 바벨론의 대승으로 끝났으며 바벨론이 근동을 다스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대를 대파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유다-팔레스타인을 정복하려 나섰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의 영향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으며 상당수의 거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들도 이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개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를 연결하는 이상이 나타났으며, 중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가운데서의 군은 신앙과 다니엘의 사자굴 가운데서의 신앙을 나타내면서 성도가 지녀야 할 신앙의 절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역사적인 열왕의 흐름과 미래에 있을 대환란과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 역사적인 시각과 접목되면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의구조

1. 궁정 이야기 (1:1-6:28)

- A.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궁에 소개됨 (1:1-21)
- B. 느부갓네살의 혼합신상에 관한 꿈 (2:1-49)
- C. 불타는 화덕 속의 젊은이들 (3:1-30)
- D. 느부갓네살의 실성 (4:1-37)
- E. 벨사살의 잔치 (5:1-31)
- F. 사자굴 속의 다니엘 (6:1-28)

2. 환상들 (7:1-12:13)

- A. 네 짐승과 인자에 관한 환상 (7:1-28)
- B. 숫양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 (8:1-27)
- C. 예레미야의 일흔 이레에 관한 해석 (9:1-27)
- D. 최후의 계시 (10:1-12:13)

호세아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황금기에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벌인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본서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백성들의 사회적 무관심,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한 신랄한 꾸지람과 심판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가 음란한 아내와 불행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호소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비롯한 헬라어 70인역, 라틴역본 별게이트, 현대의 모든 성경들은 본서 저자이며 중심인물인 ‘호세아’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로 부릅니다. 또한 본서는 호세아 저작으로 봅니다. 이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본서가 증거하며(1:1,2,4), 호세아란 이름이 1인칭 단수(내가)로 언급되고(3:1), 유대와 기독교 문헌들이 모두 본서를 호세아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B.C. 793-753년경) 통치 말기에 활동을 시작하여 북이스라엘 마지막 임금인 호세아 왕 때(B.C. 732-722년경)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1:1; B.C. 753-722년경). 그러나 본서에는 북이스라엘 멸망(B.C. 722년)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호세아 선지자 말기에 호세아 선지자의 주요 활동 무대인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

1. 정치적 배경

여로보암 2세가 북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의 국가적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제국으로 군림하던 앗수르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웃시아 왕과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이끌던 정치적 지도자들 중 다수는 서서히 교만하고 방종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도 아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음모를 꾸미며, 강도와 살인까지도 일삼았습니다(호 4:2,5-14:7:3-7). 더욱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 거의 이십 년 동안은 왕권 찬탈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호 7:3-7), 또한 쿠데타에서 승리하여 왕권을 잡은 자들은 그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조공을 바침으로써 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호 7:11:8:9:12:1).

2. 사회적 배경

여로보암 2세 때로부터 팽배해진 국가적, 경제적 번영과 외교적 평화 양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켰습니다.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기들과 경제적 부호들은 서로 긴밀하게 유착한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암 2:10,15: 5:7-9). 법관들도 뇌물을 받음으로 의인을 괴롭히는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당하게 번 돈으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사들이며, 날마다 술과 노래와 비싼 음식을 동반한 채 향연을 벌이는 향락적인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암 6:3-6). 그 결과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3. 종교적 배경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부패를 세 가지로 지적한다면 윤리적 생활과 분리된 종교형 식주의, 혼합종교주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 시대에 정치, 사회, 사법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던 권력자는 종교적 열심히 대단한 자였습니다. 벨엘에 있는 성전은 왕실의 예산으로 지원


되었고(암 7:4), 종교적 집회들이 빈번하게 개최되었습니다(암 9: 1). 그중에는 야훼 예배도 있었지만 술과 음행이 곁들여진 바알 예배도 있었습니다(호 4:11-14,18). 여러 가지 종교적 절기와 축제들도 철저히 지켜졌습니다(암 4:4-5). 예배 때의 찬양과 오케스트라 연주도 아름다웠습니다(암 5:22-23).

그러나 호세아는 백성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 이면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나 성소 내에서의 종교적 열심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점을 호세아는 간파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깨닫는 지식이 없음도 발견했습니다(호 4:1,6). 그리하여 호세아는 윤리적 생활이 동반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은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개요

먼저 1-3장을 첫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호세아가 성실치 못한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녀에게서 두 아들(이스르엘, 로암미)과 딸(로루하마)을 낳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증거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는 호세아를 통하여 징계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1장을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가 13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7단락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들을 요약하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 잘못된 외교 정책, 회개를 거역하는 죄, 배교 등입니다. 이에 대해 4단락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12-14장인데, 전체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파멸, 회복에 대한 약속 등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를 볼 때 범죄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호세아가 고멜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구조

1. 제목 (1:1)

2. 호세아서의 본론: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을 호소 (1:2-14:8)

A. 화자의 보고: 음녀와 결혼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주라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 (1:2-11)

B. 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의 설화들 (2:1-14:8)

1) 호세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되돌아오도록 호소함 (2:1-3:5)

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비난들: 하나님을 버림 (4:1-19)

3)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난들 (5:1-13:16)

4) 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에게 호소 (14:1-8)

3.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결론적 권고 (14:9)

01

2023 MAY
월요일 • Mo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다

God Turns Israel
onto the Hand
of Babyl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친애급 정책에 남유다를 침략하여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목성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1:8-16

다니엘 1장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Reading Insight

Nebuchadnezzar the second king of new Babylon invaded southern Judah ruled by King Jehoiakim who was pro-Egypt and took the king and the royal families as prisoners. Daniel and his friends were taken to Babylon at that time.

🎵 We Shall Be like Him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1:8-16

Daniel 1

8 But Daniel resolved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ith the king's food, or with the wine that he drank. Therefore he asked the chief of the eunuchs to allow him not to defile himself.

9 And God gave Daniel favor and compassion in the sight of the chief of the eunuchs,

10 and the chief of the eunuchs said to Daniel, "I fear my lord the king, who assigned your food and your drink; for why should he see that you were in worse condition than the youths who are of your own age? So you would endanger my head with the king."

11 Then Daniel said to the steward whom the chief of the eunuchs had assigned over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12 "Test your servants for ten days; let us be given vegetables to eat and water to drink.

13 Then let our appearance and the appearance of the youths who eat the king's food be observed by you, and deal with your servants according to what you see."

14 So he listened to them in this matter, and tested them for ten days.

15 At the end of ten days it was seen that they were better in appearance and fatter in flesh than all the youths who ate the king's food.

16 So the steward took away their food and the wine they were to drink, and gave them vegetabl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 중 어떤 신분층에 속한 청년이었을까요? (3절)
What kind of caste did Daniel belong to among the tribes of Israel? (v. 3)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주신 특권은? (17절)

What was the special privilege given to Daniel by God? (v. 1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빌한인연합감리교회, 신규석(SC)
찰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배연택(S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뜻을 정하다

His Mind Was Made up

한국뿐 아니라 UN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가정의 달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때 그의 나이가 15세 전후라고 합니다. 왕궁으로 이끌려가는 소년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음식(제사 음식 포함)이 ‘자기를 더럽힐 것’이라 여겼기에 이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지켰습니다. ‘더럽히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가알”은 ‘자유케 함’으로, 또는 ‘인연을 끊음’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왕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염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무슨 죄인가’란 생각을 갖지 않고, ‘먹을 것도 조심하자’는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 15세 무렵에 이와 같은 뜻을 세웠다는 것은 분명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각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세우고 가르치는 하루, 한 달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May is Family Month observed not only in Korea but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Since a family is the basic unit of a society, the month of May is observed as Family Month to recognize that in order “to establish a healthy society, we need to establish healthy families.” Then, what must the whole family do together during “Family Month?” Spending time together with parents to show them our gratitude and spending meaningful time with children would be good things to do. At the same time, we believers could deeply meditate about what kind of family we want to build up together.

When Daniel was taken to Babylon as a prisoner, he was about 15 years old. Those boys taken to the king's court of Babylon were given food and drinks in accordance with the command of the king. But Daniel refused the food and wine given by the king. Daniel resolved that the food (including those used for their worship) given by the king would defile him and he made up his mind to refuse it and did not waver. The word “defile” is “Gaal” in Hebrew and means “to be dirty and corrupt” by being “free” or by “cutting off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through the food offered by the king, Daniel might hav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free” from God. Instead of thinking “food is not the sin,” Daniel might have thought, “Let us be careful of even the food.” The fact that Daniel was only 15 years old at the time when he wrestled with this issue and made up his mind indicates that he must have been exposed to teaching of God's Word from his childhood. Through Daniel's story of how he made up his mind, I pray that we too should spend Family Month and each day to reaffirm the will of God and teach our families the Word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2

2023 MAY
화요일 • Tue

왕에게는 꿈을, 다니엘에게는 꿈의 해석을 주시다

To the King,
the Dream and
to Daniel,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는 번민에 빠집니다. 왕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모든 신하들에게 해몽을 명령하며 많은 이들은 죽을 처지에 놓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새28장(통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목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2:17-24

다니엘 2장

17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4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Reading Insight

Nebuchadnezzar had dreams and his mind was troubled. The king did not reveal what his dreams were but ordered his officials to interpret his dreams putting them in awkward and dangerous situations. Then God allowed Daniel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king's dreams and Nebuchadnezzar ended up praising the LORD.

🎵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2:17-24	Daniel 2

17 Then Daniel went to his house and made the matter known to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his companions,

18 and told them to seek mercy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mystery, so that Daniel and his companions might not be destroyed with the rest of the wise men of Babylon.

19 Then the mystery was revealed to Daniel in a vision of the night. Then Daniel blessed the God of heaven.

20 Daniel answered and said: “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to whom belong wisdom and might.

21 He changes times and seasons; he removes kings and sets up kings;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ose who have understanding;

22 he reveals deep and hidden things; he knows what is in the darkness, and the light dwells with him.

23 To you, O God of my fathers, I give thanks and praise, for you have given me wisdom and might, and have now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for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king's matter.”

24 Therefore Daniel went in to Arioch, whom the king had appointed to destroy the wise men of Babylon. He went and said thus to him: “Do not destroy the wise men of Babylon; bring me in before the king, and I will show the king the interpretat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왜 자신의 꿈을 신하들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8-9절)
Why did King Nebuchadnezzar not tell his court officials his dreams? (vv. 8-9)

꿈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23절)
How did Daniel explain how he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dream? (v. 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 나웅철(SC)
내쉬빌한인교회, 강희준(TN)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다

God Taught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는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자 신하들을 불렀습니다만 왕은 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신하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근위 대장에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나.” (15절)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가 간청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16절) 근위 대장과 왕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 어리지만 ‘차분하고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이해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통하여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심입니다. (마 5장) 어린 나이에 포로의 신분이 된 다니엘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하여 성숙한 믿음을 배우고 느부갓네살 왕은 믿음 자체를 배웁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되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King Nebuchadnezzar had a dream that troubled him and he could not sleep. Though the king called and ordered his officials to interpret his dreams, he did not tell them what his dream was and ordered them to find out what he had dreamed. All the officials including Daniel faced the possibility of death. Then Daniel asked the king's officer, "Why did the king issue such a harsh decree?" (Dan 2:15). Daniel went to see the king and asked, "If you allow me time, I will interpret the dream for you" (Dan 2:16). Daniel stood in front of the king and his officers and acted "calmly and boldly." After that, Daniel went home and asked his friends to pray for him. He urged them "to plead for mercy (for us)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mystery." Daniel acted boldly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pleaded with God. In the end King Nebuchadnezzar understood the meaning of his dreams through Daniel and praised the LORD. Through mysteries God brought Daniel to the place of prayer and allowed King Nebuchadnezzar to meet God face to face.

God wakes up the souls of all people in the midst of all circumstances. God is our father who gives all believers and nonbelievers an opportunity to know Him (Matt 5). Young Daniel as a prisoner in exile learned to become a mature believer as he personally met God face to face and King Nebuchadnezzar acknowledged God. I pray that today becomes a day to confess that God is our Father and to know God better who wakes up our sou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3

2023 MAY
수요일 • Wed

금으로 신상이 만들어지다

The Image
of Gold Was Mad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합니다. 이 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사드락), 미사엘(메삭), 아사랴(아벳느고)가 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집혀 풀무불(활활 타는 화덕) 가운데 던져지나 그들의 믿음대로(17절) 상처 없이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 새371장(통419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목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3:13-18

다니엘 3장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나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Reading Insight

King Nebuchadnezzar made an image of gold and ordered people to worship it. Then three friends of Daniel,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thrown into a blazing furnace because they did not worship the image of gold but they were rescued unharmed (v. 17).

🎵 Master, the Tempest Is Raging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3:13-18	Daniel 3

13 Then Nebuchadnezzar in furious rage commanded th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 brought. So they brought these men before the king.

14 Nebuchadnezzar answered and said to them, “Is it true, O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at you do not serve my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I have set up?”

15 Now if you are ready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to fall down and worship the image that I have made, well and good. But if you do not worship, you shall immediately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And who is the god who will deliver you out of my hands?”

16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O Nebuchadnezzar, we have no need to answer you in this matter.

17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18 But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냐(사드락), 미사엘(메삭), 아사랴(아벳네고)가 바벨론에서 행한 범죄는 무엇인가요? (12절)

What was the charge agains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Babylon? (v. 12)

불속에 던져진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27)

What happened to thos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v. 2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 조낙훈(TX)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박광배(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또 가르치시다

He Taught Again

“삼세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의 도전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이는 인간의 성품 자체를 묘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세 번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세 번의 도전을 받습니다. 먼저는 ‘왕의 음식’, 둘째는 ‘꿈의 해석’, 셋째는 ‘신상에 절하는 것과 풀무불의 위협’이었습니다. 세 번의 유혹을 통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모두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공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음식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을 유혹했지만 실패했고, 꿈을 풀이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신상을 만들며 세 번째 유혹을 시행했습니다. 이 세 번의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끝까지 ‘왕으로서’의 교만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결된 세 가지의 사건은 다니엘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주어진 삶의 기회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상황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때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을지라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There is a proverb called “the rule of three.” It is used sometimes to mean that one can achieve what one wants by attempting it three times. It is also used to depict the propensity of a person. It describes the image of a person who does not give up or lose hope until they have tried three times.

Through King Nebuchadnezzar, Daniel and his friends were challenged three times. The first was “the king’s food,” the second wa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and the third was the “worship of the image of gold and the threat of a blazing furnace.” Through these three temptations not only Daniel but also his three friends had to persevere. However, King Nebuchadnezzar continued to attack Daniel and his friends and did not lay down his insolence in front of God. First, King Nebuchadnezzar enticed Daniel and his friends but failed, then he threatened to kill them if they did not interpret his dream but failed, then ultimately he tried a third time to entice them by making the image of gold. Through these three trials, King Nebuchadnezzar showed his unwillingness to give up his insolence “as a king.” These three connected trials were opportunities of life not only for Daniel and his friends but also for gentile King Nebuchadnezzar. They were the opportunities taught by God who treats the good and the evil fairly. Even today God teaches all people through all circumstances. Sometimes even when we act like Nebuchadnezzar, God does not stop teaching us. I pray that today is the day when we make the best use of all opportunities taught by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4

2023 MAY
목요일 • Thu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꿈

Another Dream
of King
Nebuchadnezza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무사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은 해몽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같이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 새366장(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목성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4:30-37

다니엘 4장

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Reading Insight

King Nebuchadnezzar praised the LORD when he witnessed Daniel's three friends who were thrown into a blazing furnace escape unharmed. God planted another dream in Nebuchadnezzar and Daniel ended up interpreting it again. King Nebuchadnezzar lived like a wild animal for seven years as he dreamed.

🎵 Open My Eyes, That I May See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4:30-37	Daniel 4

30 and the king answered and said, "Is not this great Babylon, which I have built by my mighty power as a royal residence and for the glory of my majesty?"

31 While the words were still in the king's mouth, there fell a voice from heaven, "O King Nebuchadnezzar, to you it is spoken: The kingdom has departed from you,

32 and you shall be driven from among men, and your dwelling shall b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you shall be made to eat grass like an ox, and seven periods of time shall pass over you, until you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the kingdom of men and gives it to whom he will."

33 Immediately the word was fulfilled against Nebuchadnezzar. He was driven from among men and ate grass like an ox, and his body was wet with the dew of heaven till his hair grew as long as eagles' feathers, and his nails were like birds' claws.

34 At the end of the days I, Nebuchadnezzar, lifted my eyes to heaven, and my reason returned to me, and I blessed the Most High, and praised and honored him who lives forever, for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and his kingdom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35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accounted as nothing, and he does according to his will among the host of heaven and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none can stay his hand or say to him, "What have you done?"

36 At the same time my reason returned to me, and for the glory of my kingdom, my majesty and splendor returned to me. My counselors and my lords sought me, and I was established in my kingdom, and still more greatness was added to me.

37 Now I, Nebuchadnezzar, praise and extol and honor the King of heaven, for all his works are right and his ways are just; and those who walk in pride he is able to humbl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17, 25, 32절)

What message did God want to convey through the dreams of the king? (vv. 17, 25, 32)

왕으로 들짐승처럼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37절)

Why did the king have to live like a wild animal? (v. 3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TX)
동산연합감리교회, 유화청(TX)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교만함으로 왕위가 떠나다

The Royal Authority Was Taken due to Insolence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라 '바벨론'을 이루었지만 포로 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네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능력과 권세를 여전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30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권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1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만'을 꾸준히 알리셨고 직접 꿈으로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믿는 모습(교만)을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인지능력을 빼앗고 들짐승들과 같이 7년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참된 '복'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며, 이것이 사람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7년간 거두어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서 사람도 동물과 다르지 않음을 왕으로서 직접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위'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교만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스스로' 믿는 모습(교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Though King Nebuchadnezzar built a great nation Babylon, he experienced the presence and the reign of God through four young Israelite prisoners. At times, King Nebuchadnezzar recognized the power and protection of God and praised God. But he still boasted of his own capability and power (v. 30). To this, God did not speak through someone else but spoke directly to King Nebuchadnezzar, "Your royal authority has been taken from you" (v. 31). God warned King Nebuchadnezzar about his "insolence" through Daniel and his friends and sometimes directly to him through dreams. In spite of that, King Nebuchadnezzar did not realize his own "self-trusting insolence" so God took away his cognitive ability and made him live like a wild animal for seven years. The true "blessing" to people means to understand the will of God as a creatu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is "distinguishes" human beings from other created beings. God withheld the "blessing" of God from King Nebuchadnezzar for 7 years. As God took away the ability to understand His will from King Nebuchadnezzar, God made him understand that human beings are not any different from animals, even a king. Even today, God is warning us to remember that "our right as children of God" can be taken away from us and to "watch out for insolence." Today, if we have within ourselves "self-trusting insolence" let us repent and let us live with humility to trust only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05

2023 MAY
금요일 • Fri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

Mysteries
to King Belshazza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귀한 그릇들로 잔을 삼아 술을 마실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의 벽에 글을 썼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게 합니다.

🎵 새423장(통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목성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5:17-24

다니엘 5장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Reading Insight

The son of King Nebuchadnezzar, Belshazzar became the new king. As King Belshazzar used precious gold goblets taken from the temple of Jerusalem to drink wine, the fingers of a human hand appeared and wrote on the plaster wall in the palace. The king called Daniel and asked him to interpret the writing.

🎵 Sins of Years Are Wash'd Away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5:17-24	Daniel 5

17 Then Daniel answered and said before the king, “Let your gifts be for yourself, and give your rewards to another. Nevertheless, I will read the writing to the king and make known to him the interpretation.

18 O king, the Most High God gave Nebuchadnezzar your father kingship and greatness and glory and majesty.

19 And because of the greatness that he gave him,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trembled and feared before him. Whom he would, he killed, and whom he would, he kept alive; whom he would, he raised up, and whom he would, he humbled.

20 But when his heart was lifted up and his spirit was hardened so that he dealt proudly, he was brought down from his kingly throne, and his glory was taken from him.

21 He was driven from among the children of mankind, and his mind was made like that of a beast, and his dwelling was with the wild donkeys. He was fed grass like an ox, and his body was wet with the dew of heaven, until he knew that the Most High God rules the kingdom of mankind and sets over it whom he will.

22 And you his son, Belshazzar, have not humbled your heart, though you knew all this,

23 but you have lifted up yourself against the Lord of heaven. And the vessels of his house have been brought in before you, and you and your lords, your wives, and your concubines have drunk wine from them. And you have praised the gods of silver and gold, of bronze, iron, wood, and stone, which do not see or hear or know, but the God in whose hand is your breath, and whose are all your ways, you have not honored.

24 “Then from his presence the hand was sent, and this writing was inscrib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된 까닭은?
(20절)

Why was King Nebuchadnezzar
dethroned? (v. 20)

벨사살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신 까
닭은? (22-23절)

Why did King Belshazzar's reign
end? (vv. 22-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러브연합감리교회, 김다니엘(TX)
버몬트제일연합감리교회, 박청수(TX)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교만함으로 왕위가 끝나다

The Royal Authority Was Taken due to Insolence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진귀한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옮겨져 왔습니다. 이는 남유다에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것들을 자랑하며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 주었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왕하 20장, 사 39장) 훗날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예언이 완성됩니다.(왕하 25장) 하나님 앞에서 왕이 권력과 재력이 자신의 것임을 자랑함으로써 '교만'함을 인정받아 생겨난 결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도 결국 '자신의 권력과 재력'이 자신들의 것임을 자랑하면서 왕위가 끝납니다.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높일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을 낮추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권위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권위가 작아지고 사라지고 위협받고 있다면, 지금 '교만'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교만 - 나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을 붙들지 마시고, 매 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시길 기도합니다.

Precious goblets in the temple of Jerusalem were taken to Babylon. This was prophesied by God when King Hezekiah of southern Judah showed and boasted about treasures in his palace to the visiting dignitaries of Babylon (2 Kgs 20; Isa 39). Later this prophecy was fulfilled when King Zedekiah of southern Judah fall (2 Kgs 25). It was the result of "insolence" boasting about the power and wealth of a king who acted as if they were created by himself in front of God. King Nebuchadnezzar and his son King Belshazzar of Babylon both were dethroned as they boasted of their power and wealth as if they were created by themselves.

"Insolence" is the most dangerous propensity to human beings. When human beings trust their own mind, rely on their own experience, and exalt their own efforts, they boast their own insolence in front of God. God hates insolence so God lowers the insolent. At this moment, God-given authority to each of us disappears temporarily or forever. Except in the case of persecution because we believe in God, if the authority given to each of us by God was reduced, disappeared or threatened, we need to look at our life and find out if "insolence" has settled in our lives. We must not, even for a moment, cling to "insolence - a mind to boast about ourselves," but I pray that we come forward to God as Jesus did at every momen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6

2023 MAY
토요일 • Sat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다

Daniel Was Thrown
into Lion's De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 새323장(통355장) 부름 받아 나선 이몸

목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6:16-23

다니엘 6장

16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19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20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22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Reading Insight

Darius of Mede killed King Belshazzar of Babylon and became king of Babylon. King Darius issued a decree prohibiting prayer to any god or man other than the king and anyone violating would be thrown into the lions' den. Under this decree Daniel continued to pray prostrate to God three times a day.

🎵 Call'd of God, We Honor the Call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6:16-23	Daniel 6

16 Then the king commanded, and Daniel was brought and cast into the den of lions. The king declared to Daniel, "May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deliver you!"

17 And a stone was brought and laid on the mouth of the den, and the king sealed it with his own signet and with the signet of his lords, that nothing might be changed concerning Daniel.

18 Then the king went to his palace and spent the night fasting; no diversions were brought to him, and sleep fled from him.

19 Then, at break of day, the king arose and went in haste to the den of lions.

20 As he came near to the den where Daniel was, he cried out in a tone of anguish. The king declared to Daniel, "O Daniel, servant of the living God, has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been able to deliver you from the lions?"

21 Then Daniel said to the king, "O king, live forever!"

22 My God sent his angel and shut the lions' mouths, and they have not harmed me, because I was found blameless before him; and also before you, O king, I have done no harm."

23 Then the king was exceedingly glad, and commanded that Daniel be taken up out of the den. So Daniel was taken up out of the den, and no kind of harm was found on him, because he had trusted in his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니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4절)

What was the public's opinion of Daniel? (v. 4)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해함을 입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나요? (23절)

How does the Bible explain why Daniel was not harmed by the lions? (v. 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배혁(TX)
성루가연합감리교회, 소정일(TX)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무죄합니다

The High Official of the Babylon Court Started

바벨론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꾀를 냈습니다. 왕 이외의 신과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죽게 하자는 법을 왕에게 제안하고 왕의 허락도 받아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법령을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살아서 나오는 이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중요한 고백을 뱉어냅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 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2절) 바벨론에서 왕이 곧 법이기에 왕의 법령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을 왕 앞에서 강조합니다. 또한 왕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담대히 말하지요.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도 보게 된다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경험한 이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왕의 법령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하루’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고 그다음 세상과의 건강한 교제를 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to envy Daniel. To this, the administrators and satraps devised a scheme. They proposed a decree prohibiting prayer to any other god or man than the king and any violator would be thrown into the lions' den. The king approved the proposed decree. However, in spite of this decree, Daniel continued to pray prostrate to God three times a day and gave thanks to God. Daniel was thrown into the lions' den but miraculously came out of the den unharmed. Daniel uttered this confession, "Because I was found innocent in his sight. Nor have I ever done any wrong before you, O king" (v. 22). In Babylon, because the king was the law, violating the decree of the king was a crime. But Daniel emphasized "innocence in front of God" not in front of the king. He declared boldly that he had not done any wrong before the king either. Believers sometimes agonize over this. To live as a Christian in this world is not easy and sometimes as a Christian we need to endure hardship. Nonetheless, we wish the same miracles that happened to Daniel would happen to us. But Daniel was different. Even while the decree of the king was in effect, Daniel gave thanks to God for the grace of God given to him for the day. At the same time, Daniel lived his life without hiding to the world that he was a believer. God wanted to show us Daniel's faithful life. God wants us to treat our relationship with God as a higher priority tha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the world. Try to establish priority in your life using the Word of God as a guide. Then begin your day as you affirm your resolve as to how faithful you want to live your life. An honest life in front of God will be recognized as such by the world as well.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07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추상적인 사랑을 넘어

김기석목사(청파교회, 서울)

온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런 사랑은 대개 관념 속에 존재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보면서 애달파 하고, 고통을 겪는 이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한다.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 무정한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냐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아픔에 눈을 돌리며 똑같은 탄식을 반복한다. 세상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기도 한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들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인터넷 공간에만 머물고 있다면 상관없다. 문제는 우리가 산뜻하게 유지하고 싶은 일상의 공간에 그들이 투입될 때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대하거나, 마음의 담을 쌓아 그를 밀어내려고 한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라는 데, 우리는 환대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가 더 많다.

세상의 아픔을 차마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에 빠지기도 하면서도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언뜻 드러나는 하늘을 본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무정하고 사나운 세상을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붙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당위와 곤경에 처한 이들과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 자아 사이에서 바장인다. 조금씩이라도 당위의 방향으로 몸을 틀 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건만 대개는 옛 삶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당위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양심을 괴롭힐 때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고통을 개별화시키거나, 개인의 선한 행동으로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힌 이들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산에 남겨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목자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방에 머무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수께서 많은 표징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로 몰리자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지도자들은 기존 질서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약탈할 것이라고 서로 말한다. 민족 전체의 안위가 걸려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실은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의 해체였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의 셈법은 간단하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묘한 논리는 악마적이다. 희생되어야 할 개인 가운데서 자기들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는 늘 이런 방식으로 작동된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전체주의적 발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려준다. 막강한 적들이 도시를 점령한 후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두 욕보지 않으려면 너희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는 적들이 와서 모두를 욕보이게 할지언정 어느 한 여자를 뽑아서 욕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위급할 때면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나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두렵고 떨리지만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용기이다. 추상적인 사랑 담론에서 벗어나 우리 곁에 다가온 사람 하나에게 성심을 다할 때 문득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08

2023 MAY
월요일 • Mon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He Is
What He Has Been
from Eternit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시간상 다니엘서 6장 이전, 벨사살 왕 때 일어난 환상) 다니엘은 사자, 곰, 표범, 열 불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각 나라들, 바벨론, 메대/바사, 알렉산더 제국,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합니다.

🎵 새490장(통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목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7:9-14

다니엘 7장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상 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 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 6 includes Daniel's vision during the reign of King Belshazzar. In his vision Daniel saw a lion, a bear, a leopard, and a beast with ten horns. These beasts symbolized four different empires: Babylon, Mede/Persia, the empire of Alexander and Rome. Through these, God proclaimed that all nations are under the sovereignty of God.

🎵 There's a Dream that I Dream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7:9-14	Daniel 7

9 “As I looked, thrones were placed, and the Ancient of Days took his seat; his clothing was white as snow, and the hair of his head like pure wool; his throne was fiery flames; its wheels were burning fire.

10 A stream of fire issued and came out from before him; a thousand thousands served him, and ten thousand times ten thousand stood before him; the court sat in judgment, and the books were opened.

11 “I looked then because of the sound of the great words that the horn was speaking. And as I looked, the beast was killed, and its body destroyed and given over to be burned with fire.

12 As for the rest of the beasts, their dominion was taken away, but their lives were prolonged for a season and a time.

13 “I saw in the night visions, and behold, with the clouds of heaven there came one like a son of man, and he came to the Ancient of Days and was presented before him.

14 And to him was given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which shall not pass away, and his kingdom one that shall not be destroy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나요? (13-14절)
To whom had God given the power, glory and nation?
(vv. 13-14)

하나님께서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이는 무엇을 하셨나요? (26-27절)
What did the one who was given the power by God do?
(vv. 26-2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베드로연합감리교회 한여부, 김데이빗(TX)
세상의 빛 연합감리교회, 김형남(TX)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증인 된 삶

Life as a Witness

성경 말씀 속,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설명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꿈과 환상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쉽게 이해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국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경고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면 지명을 특정하고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건의 순서를 밝히 알려 주셨어야 합니다.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사건 중심으로 보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꿈과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뚜렷한 한 가지 '인식'이 확인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9절)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왕좌 위에 계신 분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꿈과 환상 속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이지구나'라는 뚜렷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운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환상과 꿈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증인 되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바라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얻은 분명한 증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참된 증인으로써만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God had allowed through His Word these prophets' dreams and visions and written record: Daniel, Ezekiel and Apostle John. Their record was explained through the next generations.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and visions was still difficult. Because they were given and weren't meant to be easy to understand. If God intended to warn either a specific nation or about a specific incident, He should have revealed the face of the specific person and the chronology of the specific incident. Through the dreams, the future of King Nebuchadnezzar was not revealed incident by incident and we should assume that there is a clear purpose of God behind it.

Between the dreams and the visions, certain epistemology is affirmed by Daniel. "Thrones were set in place, and the Ancient of Days took his seat" (v. 9). As Daniel dreamed and saw a vision, he was sure who sat on the throne. Even in his dreams and visions, Daniel was sure that "this is God." God had given Daniel the ability to understand that the sovereignty of God was at work and therefore he could wait for God's next move. What God wants from the believers is not just to deliver the dreams and visions to them. God wants His believers to be the witness of God's works. Those witnesses must share the clear evidence of what they gained. We must share, "God is our father" and "God reigns the world." I pray that you live today as a true witn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9

2023 MAY
화요일 • Tue

정한 때의 끝에 관한 환상

Vision of the End
of the Appointed
Tim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본 환상이었습니다. (2, 27절) 숫양은 메대와 바사(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숫염소는 헬라(그리스)제국을 상징합니다.

🎵 새179장(통167장) 주 예수님의 강림이

묵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8:19-27

다니엘 8장

19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뽀뽀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피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6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7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Reading Insight

Daniel saw a vision of a ram and a goat but saw this vision while he was awake. (vv. 2, 27) The ram symbolizes the empires of Media and Persia and the goat symbolizes the empire of Greece.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8:19-27	Daniel 8

19 He said, “Behold, I will make known to you what shall be at the latter end of the indignation, for it refers to the appointed time of the end.

20 As for the ram that you saw with the two horns, these are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

21 And the goat is the king of Greece. And the great horn between his eyes is the first king.

22 As for the horn that was broken, in place of which four others arose, four kingdoms shall arise from his nation, but not with his power.

23 And at the latter end of their kingdom,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their limit, a king of bold face, one who understands riddles, shall arise.

24 His power shall be great--but not by his own power; and he shall cause fearful destruction and shall succeed in what he does, and destroy mighty men and the people who are the saints.

25 By his cunning he shall make deceit prosper under his hand, and in his own mind he shall become great. Without warning he shall destroy many. And he shall even rise up against the Prince of princes, and he shall be broken--but by no human hand.

26 The vision of the evenings and the mornings that has been told is true, but seal up the vision, for it refers to many days from now.”

27 And I, Daniel, was overcome and lay sick for some days. Then I rose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but I was appalled by the vision and did not understand 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네 불”로 상징되는 나라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10-11절)

What did the nation that was symbolized by “4 horns” do? (vv. 10-11)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된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요? (14절)

Until when will the condition of the “surrender of the sanctuary and the host” continue? (v.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송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웨슬리연합감리교회, 주요한(TX)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이진희(TX)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계시를 받고 앓다

Became Ill upon Receiving the Vision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이방의 나라들을 향하여 기록되었고, 8-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유대인들을 향한 계시로 기록되었습니다. ‘큰 뿔’로 상징된 한 나라는 무너지고 ‘네 뿔’로 상징된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21-22절), 네 나라는 이내 곧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을 계시합니다.(23절) 이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어떠한 나라의 ‘권세’도 ‘자기의 힘’이 아니며(24절), 그 권세가 ‘사람의 손’(다른 나라와의 다툼)과 상관없이 사라질 것임을 계시합니다.(25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계시들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과 끝을 보고 난 다니엘은 여러 날을 앓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보았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시금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됨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평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같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삶의 참된 평안은 ‘인식’의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The Book of Daniel consists of two parts. Chapters 1-7 were revelations written in Aramaic intended for gentile nations and Chapters 8-12 were revelations written in Hebrew intended for the people of Judah. The vision showed one nation symbolized by a “big horn” would be extinguished soon and four nations symbolized by “four horns” would come into being (vv. 21-22) but they too would face the last moment soon (v. 23). Through this vision the message is clear that there is a beginning and an end for all nations. Regardless of how mighty a nation may be, the power of a nation is not their own strength (v. 24), and that power would disappear independent of “the hands of others” (dispute against other nations) (v. 25). As God showed these visions to Daniel, He also gave Daniel a hint that Israel would be restored. People want to know their future. Because if people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they think their worries about their future will disappear. But when Daniel saw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future happenings, he became ill for many days. Because though Daniel saw the future, he as a human being could not fully understand the will and the providence of God. Thus, Daniel once again learned humility in front of the sovereignty of God.

The Book of Daniel teaches us that the peace that we can gain through knowing the future is not the same as the peace bestowed by God. We also learn that true peace is not gained through the dimension of epistemology but it is a gift of God obtainable only when we totally rely on God. I pray that today will be a day when we enjoy true peace by relying on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0

2023 MAY
수요일 • Wed

다니엘의 기도

Prayer of Dani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렘 25 장)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기다리며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시간상으로 5-6장과 연결됩니다.)

🎵 새 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묵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9:13-19

다니엘 9장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며 우리는 범 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Reading Insight

The seventy-year exile as prisoners in Babylon proclaimed through the prophet Jeremiah is coming to an end (Jer 25). Waiting for the restoration promised by God, Daniel prayed. (Connected to Chapters 5 and 6)

🎵 'Tis the Blessed Hour of Prayer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9:13-19	Daniel 9

13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all this calamity has come upon us; yet we have not entreated the favor of the LORD our God, turning from our iniquities and gaining insight by your truth.

14 Therefore the LORD has kept ready the calamity and has brought it upon us, for the LORD our God is righteous in all the works that he has done, and we have not obeyed his voice.

15 And now, O Lord our God, who brought your people out of the land of Egypt with a mighty hand, and have made a name for yourself, as at this day, we have sinned, we have done wickedly.

16 “O Lord, according to all your righteous acts, let your anger and your wrath turn away from your city Jerusalem, your holy hill, because for our sins, and for the iniquities of our fathers, Jerusalem and your people have become a byword among all who are around us.

17 Now therefore, O our God, listen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o his pleas for mercy, and for your own sake, O Lord, make your face to shine upon your sanctuary, which is desolate.

18 O my God, incline your ear and hear. Open your eyes and see our desolations, and the city that is called by your name. For we do not present our pleas before you because of our righteousness, but because of your great mercy.

19 O Lord, hear; O Lord, forgive. O Lord, pay attention and act. Delay not, for your own sake, O my God, because your city and your people are called by your na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다니엘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17절)

How does the Book of Daniel describe the image of those seeking salvation of God and help of God? (v. 17)

다니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23절)

How does the Book of Daniel describe the fact that Daniel was answered by God? (v. 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현인회중, 이병설(TX)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권성철(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Depend on the Mercy of the LORD

다니엘은 기도 전에 준비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3절) 몸과 마음으로 기도의 준비를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는 다니엘은 유사한 고백을 반복합니다. “은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7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8절)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9절)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4절)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5절)

다니엘의 기도는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로써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자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도 언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18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막(성소, 지성소)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신 12장)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 “여호와와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지요. (왕상 8장)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 성’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준비된 기도이자, 하나님의 언약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언약으로 기도하고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Daniel made preparations before he started praying. “Daniel pleaded with God in prayer and petition, in fasting, and in sackcloth and ashes” (v. 3). Having completed preparations for prayer in body and in mind, Daniel repeated similar confessions. “We have not listened to your servants the prophets, who spoke in your name to all the people of the land” (v. 6). “Because of our unfaithfulness to you” (v. 7). “Because we have sinned again” (v. 8). “We have rebelled against Him” (v. 9). “We have not obeyed Him” (v. 14). “We have sinned, we have done wrong” (v. 15).

The prayers of Daniel were succinct. His prayer was, “We have not obeyed the Word of God thus we have sinned.” As Daniel confessed that they did not obey the Word of God he also mentioned the covenant of God. “See the city that bears your Name” (v. 18). The covenant of God is at Jerusalem. “God had chosen the place to put His Name” and it was the Tabernacle (temple, sanctuary), and God received the worship of the people at the place, received offerings at the place, and met the people at the place (Deut 12). Through David and Solomon “The place where the Name of the LORD would be put” was chosen for the site of the temple (1 Kgs 8). Daniel prayed while he was thinking about the covenant of God. Relying on the Word of God, Daniel pleaded with God to remember Jerusalem and the children of God and prayed while relying on the mercy of God who gave the Word. Daniel’s prayer was well prepared and well tuned to the covenant of God. This is a good role model for believers today, a necessary model for prayer. Today I believe that we should pray as Daniel did with the covenant and should pray relying on the mercy of God so that our prayers will be answer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1

2023 MAY
목요일 • Thu

큰 전쟁에 관한 환상

Vision of
a Great Wa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사(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끈 왕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바사의 고레스 왕 초기까지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삶을 살면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 새397장(통454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목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10:10-17

다니엘 10장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5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썽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Reading Insight

King Cyrus of Persia defeated Babylon and permitted restora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From the end of the kingdom of Babylon until the beginning of the reign of King Cyrus of Persia, Daniel was the chief administrator and saw a vision of a great war.

🎵 In Heavenly Love Abiding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10:10-17	Daniel 10

10 And behold, a hand touched me and set me trembling on my hands and knees.

11 And he said to me, “O Daniel, man greatly loved, understand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and stand upright, for now I have been sent to you.” And when he had spoken this word to me, I stood up trembling.

12 Then he said to me, “Fear not, Daniel, for from the first day that you set your heart to understand and humbled yourself before your God, your words have been heard, and I have come because of your words.

13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withstood me twenty-one days, but Michael, one of the chief princes, came to help me, for I was left there with the kings of Persia,

14 and came to make you understand what is to happen to your people in the latter days. For the vision is for days yet to come.”

15 When he had spoken to me according to these words, I turned my face toward the ground and was mute.

16 And behold, one in the likeness of the children of man touched my lips. Then I opened my mouth and spoke. I said to him who stood before me, “O my lord, by reason of the vision pains have come upon me, and I retain no strength.

17 How can my lord’s servant talk with my lord? For now no strength remains in me, and no breath is left in 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환상으로 ‘한 사람’을 본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8절)

What happened to Daniel when he saw a “man” in his vision? (v. 8)

다니엘은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응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12절)

What did Daniel do to understand the vision (or to be answered)? (v. 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접합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TX)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섭(V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겸비함으로 응답을 받다

Answered through Humility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후, 슬퍼하며 떡도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히데겔 강가에서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 순금 띠를 띤 사람을 보게 됩니다(학자들은 다니엘이 예수님을 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두려워서 도망쳤고 다니엘만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떨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겸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나(aw-nav), 겸비"라는 단어는 '문자적, 상징적' 누르다, 또는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대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되기에 스스로 낮추는 모습도 있지만 '점령'된 모습으로 낮추어지고 굴복된 모습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한 사람'과 대면했는데, 이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겸비'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출 10:3)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한 사람'의 모습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Having seen a vision of a great war, Daniel mourned and did not touch choice food, meat or wine. After that Daniel saw a man dressed in linen, with a belt of the finest gold around his waist as he was standing on the bank of the great river, the Tigris. (Some Biblical scholars claim that Daniel saw Jesus.) At that moment, people around Daniel did not see the vision and fled out of fear but Daniel was alone, heard the voice and fell into a deep sleep, his face to the ground.

The phrase "sincere humility" is the image of trembling with your face to the ground. The Hebrew word "aw-nav" means (literally and symbolically) "press" or "humble oneself, bully, answer." Since this word is used either as intransitive or transitive, it depicts self-humility but it is more often used to describe humbling under conquest or surrender. When Daniel saw a man in his vision, he tremble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this image is described as the word "sincere humility." In Exodus, when Moses and Aaron visited Pharaoh to deliver the Word of the LORD, God pointed to Pharaoh, "How long will you refuse to humble yourself before me?" (Exod 10:3). The reason why God revealed a man to Daniel in his vision and the will of God to him was because Daniel always feared God and maintained his attitude of laying prostrate with fear and trembling in front of God. We will receive answers from God when we prostrate ourselves in front of God. I pray that you will all be "humble" in front of God today so that you may all receive answers from God to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12

2023 MAY
금요일 • Fri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싸움

War between
the King of the South
and
the King of the Nor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그리스)의 등장, 당시 근동의 패권 다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적 주석: 알렉산더 대왕 후, 북방 왕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 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간의 다툼, 그리고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와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다.)

🎵 새280장(통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묵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11:28-35

다니엘 11장

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 이는 갓뎀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34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Reading Insight

Today's chapter records the fall of the Empire of Persia and the rise of Greece, and the struggle for hegemony among nations in the Near East at the time. (Historical Exegesis: After Alexander the Great, the struggle between the kingdom of Seleucid of Syria in the North and the kingdom of Ptolemy of Egypt in the South, the persecution of Judah by Antiochus Epiphanes and the end of his era were recorded.)

🎵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11:28-35

Daniel 11

28 And he shall return to his land with great wealth, but his heart shall be set against the holy covenant. And he shall work his will and return to his own land.

29 “At the time appointed he shall return and come into the south, but it shall not be this time as it was before.

30 For ships of Kittim shall come against him, and he shall be afraid and withdraw, and shall turn back and be enraged and take action against the holy covenant. He shall turn back and pay attention to those who forsake the holy covenant.

31 Forces from him shall appear and profane the temple and fortress, and shall take away the regular burnt offering. And they shall set up the abomination that makes desolate.

32 He shall seduce with flattery those who violate the covenant, but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stand firm and take action.

33 And the wise among the people shall make many understand, though for some days they shall stumble by sword and flame, by captivity and plunder.

34 When they stumble, they shall receive a little help. And many shall join themselves to them with flattery,

35 and some of the wise shall stumble, so that they may be refined, purified, and made white, until the time of the end, for it still awaits the appointed ti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미래의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왕의 노력은 어떻게 되었나요? (6, 14, 17절)

What happened to the king's efforts to try to turn the future to his advantage? (vv. 6, 14, 17)

‘정해진 기한’의 다른 표현은 무엇인가요? (36절)

What is the alternate expression of “appointed time?” (v. 3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권홍(VA)
새빛교회, 김은관(V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정해진 기한

Appointed Time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후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남방)와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북방)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사건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패권 다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박해도 지속됩니다. 복잡한 패권 다툼이 계시로 드러나는 가운데, 왕들의 행동 속 유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3절)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12절) “스스로 높아져서.” (14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16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28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36절) 앞으로 일어날 왕들의 패권 다툼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은 다양하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언제나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음’이 계시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왕들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을 견주어 ‘검비한 자’와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동시에 왕들의 전쟁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하십니다. ‘정해진 기한’이란 ‘왕들의 싸움이 끝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받는 시간이고 왕들에게는 주어진 삶의 기회가 마무리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방의 왕들은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해하고 잘못을 반복하면서 이 기회도 잃게 될 것임이 계시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삶과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어떻게 끝날지 아느냐?” 계시된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시며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Babylon was destroyed by Persia and Persia was destroyed by Greece. After that, the kingdom of Ptolemy in the South fought against the kingdom of Seleucid of Syria in the North. All this was seen by Daniel in his vision. Caught in the struggle of hegemony between mighty nations, the persecu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lso continued. As these complicated struggles for hegemony were revealed to Daniel as visions, some similarities among the actions of the kings were repeatedly recorded. “The king will do as he pleases” (v. 3). “The king of the South will be filled with pride” (v. 12). “The violent men will rebel” (v. 14). “Will do as he pleases” (v. 16). “He will take action against it” (v. 28). “The king will do as he pleases and exalt himself” (v. 36). The names of the kings who appeared in the vision and in the struggle for hegemony were numerous but the common thread in their thoughts and deeds was to “do as they please and exalt themselves.”

God compared the images of the kings and Daniel and showed images of the humble and the insolent. At the same time, God said that there was an appointed time for the war between the kings. “Appointed time” means “the end of the war between the kings.” It is also the time for judgment for Israel and the time to exhaust the opportunity of life given to the kings. It was the opportunity for self-awareness of those gentile kings who invaded Israel. However, it was also a revelation that this God-given opportunity would be lost as they repeatedly cheated and hurt each other. God is asking not only Daniel but also us, “Do you know how the life of ‘do as we please and exalt ourselves’ would end?” As we meditate on this revelation and as we answer God’s question, I pray that we do not lose this opportunit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3

2023 MAY
토요일 • Sat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When Jesus
Comes to Rewar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 새176장(통1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묵상본문

통독본문

다니엘 12:5-10

다니엘 12장

5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6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7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Reading Insight

This text deals with the end times. Some will receive everlasting life and others will receive everlasting shame. No one knows when that end time will come and how everything will end.

🎵 The Wise Will Understand

Meditation	Reading Plan
Daniel 12:5-10	Daniel 12

5 Then I, Daniel, looked, and behold, two others stood, one on this bank of the stream and one on that bank of the stream.

6 And someone said to the man clothed in linen, who was above the waters of the stream, "How long shall it be till the end of these wonders?"

7 And I heard the man clothed in linen, who was above the waters of the stream; he raised his right hand and his left hand toward heaven and swore by him who lives forever that it would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and that when the shattering of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comes to an end all these things would be finished.

8 I heard, but I did not understand. Then I said, "O my lord, what shall be the outcome of these things?"

9 He said, "Go your way, Daniel, for the words are shut up and sealed until the time of the end.

10 Many shall purify themselves and make themselves white and be refined, but the wicked shall act wickedly. And none of the wicked shall understand, but those who are wise shall understa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놀라운 일의 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7절)

When will the “astonishing things” be fulfilled? (v. 7)

‘복’을 받으려면 마지막 때의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나요? (11-12절)

What must one endure or wait at the end time before one receives the “blessing”? (vv. 11-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가연합감리교회, 최윤석(VA)
알렐렐한인교회, 류영성(V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마지막을 준비하라

Prepare for the End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영원히 죽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1-2절) 이러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어렵게나마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돌아다니며 살기 위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 증거이지요. (4절) 따라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다니엘에게 “이 말을 (환상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권합니다. (9절) 이것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고 지혜를 얻어 마지막 때를 알게 되고, 악행을 하는 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10절), ‘봉함(sealed)’이란 계시의 의미 자체가 왜곡될 것을 차단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과 마지막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며 이로써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느끼는 것은 모든 이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세례를 받으려 요단 강으로 나아오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긴 다니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려놓지 않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예수 그리스도)을 따라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삶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ill be saved at the end time.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ill rise from the dead to everlasting life and others whose names are not recorded in the book of life will awake to everlasting contempt (v. 2). No one knows when the end will come but people will sense that the end is nearing. At that time,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 in order to survive (v. 4). Also, the person in linen tells Daniel to “roll up and seal the words until the time of the end” (v. 9). This does not mean that Daniel should not share the revelation with other people. Rather, “to seal” means to protect the revelation from being misinterpreted, as many people who are purified will become wise to understand the end time while those who are wicked will not understand (v. 10).

Preparing for the end time is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feeling the end time. Preparing for the end time refers to having a life of Jesus and living a changed life as followers of Jesus. But simply feeling the end time is to live a life apart from Jesus even though one may acknowledge that Jesus died for all. It's like living as Pharisees who came out to the Jordan river to get baptized out of fear of God's judgment. But since his childhood, Daniel followed God's will and feared God to the end. Moreover, Daniel prepared for the end tim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Jesus Christ). I pray that you will be like Daniel and prepare for the end tim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14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사랑의 경계와 계절

김정호 목사(후러성제일교회, NY)

누가 그러네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렇지만 가정이나 교회는 사람을 골라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고쳐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하신 것도 고쳐서 쓰신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양창순 박사는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칼럼에서 가족이란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또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불가사의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가족에 대한 네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가족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족관계는 단순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네 번째는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라고 여기는 것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쉽게 생각해서 오히려 가족관계로 인한 상처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이 좋지 않으니 중도를 지키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짐착이 되고 신심이 지나치면 맹신이 되고 즐거움이 지나치면 중독이 되고 헌신이 지나치면 오버가 되고 관심이 지나치면 오지랖이 되고 계율이 지나치면 경직이 되고 지혜가 지나치면 허무가 됩니다.”

중용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스승께서 제게 “목사는 가을의 선선함과 겨울의 냉혹함을 알아야 하는데 어찌 항상 봄과 여름이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잘 못했을까? 돌이켜 보면 자신감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외로와야 한다. 철저하게 홀로되어 하늘과의 만남에 접근해야 한다.” 누누이 책망하셨는데, 잘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people pleaser’였던 것입니다. 남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콤플렉스, 그리고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

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이 약하고 남에 의해서 자기 존재감이 확인되어야 하니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저를 치유하는 레마(rhema)였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서 자유하게 되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신학 공부나 자신을 발견하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열등감에 짓눌려있던 나를 보스턴신학대학원 구약 헤렐 Beck교수님이 일으켜 주셨고, 엘리자베스 Bethenhausen 교수가 신학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공대에서 화공학 공부하면서는 경험하지 못한 스승들을 신학교에서는 만났습니다. 입학할 때 기죽어 찌그러졌던 학생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공부에 대해 당당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스턴한인 교회에서 흥근수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이 나의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찾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지난주 부모님 모신 묘지 사무실에서 새 묘비를 세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효도는 새 묘비를 보러 시카고에 빠른 시일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들 효도는 별 관심 없고 손자가 집에 오면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행복이면 족합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선과 경계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해서도 안되고 잘 되라고 기대하는 것도 일방적이면 무례가 됩니다. 가족이라고 내 감정 함부로 표출하는 것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고 서로의 마음에 예민해야 합니다. 솔직히 가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가정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아내나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끄떡거리고 웃으면 됩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데 사사건건 뭐라 참견하지 않아도 되어 좋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 가깝게 밀착되면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좀 떨어져서 웃어주고 고개 끄떡거리는 역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들어 사람에 대해 다시 배우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선과 경계 그리고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합니다. 더 늙기 전에 철저히 홀로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일에 집중하는 연습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다 섭섭함과 실망에 빠지는 망신스러운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을 알고 바라보는 일을 인생 최고 목표와 목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15

2023 MAY
월요일 • Mon

호세아와 그의 가족

Come, Every Soul
by Sin Oppress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
니다.

🎵 새536장(통 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들

목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1:2-9

호세아 1:1-2:1

2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7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고멜이 로루하마를 젖 떼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Reading Insight

When Jeroboam becomes king of Israel, Hosea is called to bring the Word of God as a prophet.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as enjoying material prosperity. However, they were spiritually impoverished as they had fallen away from God.

Hosea and His Family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1:2-9	Hosea 1:1-2:1

2 When the LORD first spoke through Hosea, the LORD said to Hosea, “Go, take to yourself a wife of whoredom and have children of whoredom, for the land commits great whoredom by forsaking the LORD.”

3 So he went and took Gomer, the daughter of Diblaim, and she conceived and bore him a son.

4 And the LORD said to him, “Call his name Jezreel, for in just a little while I will punish the house of Jehu for the blood of Jezreel, and I will put an end to the kingdom of the house of Israel.

5 And on that day I will break the bow of Israel in the Valley of Jezreel.”

6 She conceived again and bore a daughter. And the LORD said to him, “Call her name No Mercy, for I will no more have mercy on the house of Israel, to forgive them at all.

7 But I will have mercy on the house of Judah, and I will save them by the LORD their God. I will not save them by bow or by sword or by war or by horses or by horsemen.”

8 When she had weaned No Mercy, she conceived and bore a son.

9 And the LORD said, “Call his name Not My People, for you are not my people, and I am not you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2절)

In what way is Israel's unfaithfulness to God described? (v. 2)

‘백성’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겠다 하나요? (10절)

By what name other than “my people” will the people of Israel be called? (v. 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애쉬번 한인교회, 강현식(VA)
엠마오연합감리교회, 김철기(V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이름을 지어주시다

Giving a Name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란 의미의 이름이고 고멜은 '(실패의 관점에서) 끝나다, 실패하다'란 의미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구원자'가 '실패자'를 아내로 삼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도 직접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의미이고, 로루하마는 '궁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구원해야 하는 '구원자'의 아내가 '실패자'이고 자녀들은 '심어나, 궁홀함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아님' 이기에 '구원자'의 처지가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비록 호세아가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호세아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호세아는 가정의 환란으로 시름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심으신 자녀들, 궁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녀들, 백성이 아닌 자녀들에 대한 아픔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자녀들을 모으시고 궁홀히 여겨주시고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대로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그 이름대로 잘 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회복시키고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God calls Hosea to serve as a prophet and commands him to marry Gomer. The name Hosea means "the one who saves" and the name Gomer means "to complete" or "to fail." In other words, God tells "the one who saves" to have as his wife the one who is a "failure." Moreover, God also gives names to Hosea's children. The name Jezreel means "the Lord sows," the name Lo-Ruhamah means "not loved," and the name Lo-Ammi means "not my people." Marrying a wife who is a "failure" and having children who are "planted, not loved, and not my people" show the dire situation of the "one who saves." Although this situation in Hosea's life is very difficult, God puts Hosea in this situation to communicate the condition of God's heart. In other words, just as Hosea struggles with the painful situation of his family, God's heart is broken by the people of the world. However, God doesn't stop with simply telling Hosea how much God is hurt by the people who are planted in this world but who are not loved and unqualified to be His people. God also tells Hosea that God will gather His people, have mercy on them and call them as His people.

It is normal for people to give their children beautiful names, hoping that they will live up to their given names. But God tells those people who have been given bad names and live lives that are similar to their bad names that God will redeem them and change their lives. By this, God shows them who their real savior is. Remember that God called us to be His children and do not give up. Our God will comfort His children and redeem the life of His childre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6

2023 MAY
화요일 • Tue

음행을 제하라

Stop the Fornica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를 지적하시며,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새423장(통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2:2-7

호세아 2:2-13

2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5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6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 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Reading Insight

The sins of Gomer, Hosea's wife, are recorded in detail. These recorded sins represent the sins that Israel committed against God. God accuses them of Baal worship and tells them to renew their purity.

🎵 Sins of Years Are Wash'd Away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2:2-7	Hosea 2:2-13

2 “Plead with your mother, plead-- for she is not my wife, and I am not her husband-- that she put away her whoring from her face, and her adultery from between her breasts;

3 lest I strip her naked and make her as in the day she was born, and make her like a wilderness, and make her like a parched land, and kill her with thirst.

4 Upon her children also I will have no mercy, because they are children of whoredom.

5 For their mother has played the whore; she who conceived them has acted shamefully. For she said, ‘I will go after my lovers, who give me my bread and my water, my wool and my flax, my oil and my drink.’

6 Therefore I will hedge up her way with thorns, and I will build a wall against her, so that she cannot find her paths.

7 She shall pursue her lovers but not overtake them, and she shall seek them but shall not find them. Then she shall say, ‘I will go and return to my first husband, for it was better for me then than now.’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고멜이(이스라엘) 먹고 마신 것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8절)

Who gave Gomer (Israel) her
drinks? (v. 8)

남편을(하나님) 떠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합니까? (3, 9절)

What will be done to the one
who deserted her husband
(God)? (vv. 3, 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성톤사김의교회, 김영봉(VA)
와성톤제일교회, 정성호(V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

I Was Better Off then than Now

고멜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음행은 마치 에스겔서(16장)와 누가복음(16장)을 연상시킵니다. 에스겔서에서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 건강하게 자랐지요. 하지만, 자란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방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며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아버지(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탕진하고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음을 깨닫고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말씀입니다. 전자의 사건은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드러나고, 후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다리심이 드러납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한 가지는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때’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때가 좋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좋았다’라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나오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 -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The fornication of Gomer who symbolizes Israel resembles the stories in the Book of Ezekiel (Ch. 16) and the Gospel of Luke (Ch. 16). In Ezekiel, God nurtures and cares for Israel who was like an abandoned child, but Israel turns its back on God and worships foreign gods. This angered God and caused God to punish Israel. However, as Israel suffers God's judgment, God also causes Israel to remember the love and care that they once received from God. Through their remembrance of God's love and care, Israel returns to God. The son who returned home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in the Gospel of Luke represents Israel who ran away from home with their father's (God's) inheritance. The prodigal son squanders everything and returns home after realizing that there is goodness in the father's home. The first story tells about God's powerful guidance and the second story tells about God's mercy and waiting. Although the stories may be different, there is one common thing in all these stories and that is God causing them to remember how things were better "then." In our life, God sometimes also allows us to experience a "spiritual void" and, through this experience, helps us to realize that only God can fill the void in our life. When we feel that "those times when we were intimate with God were the good times" or "it was good when we loved God and served God with passion and diligence," then we should remember that God is working in our hearts. God continues to work in our hearts to call us and help us to realize that true satisfaction in life is found in God and God only. When you feel God tugging at your heart, come to God in obedience. That is when we will experience God's filling of our empty soul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7

2023 MAY
수요일 • Wed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How God Loves
His Peop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를 지적하시며,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새255장(통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2:16-23

호세아 2:14-23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God knew the sins of Israel and condemned the worship of Baal. God commanded them to restore their purity.

🎵 Tho' Your Sins Be as Scarlet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2:16-23	Hosea 2:14-23

16 “And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you will call me ‘My Husband,’ and no longer will you call me ‘My Baal.’

17 For I will remove the names of the Baals from her mouth, and they shall be remembered by name no more.

18 And I will make for them a covenant on that day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the creeping things of the ground. And I will abolish the bow, the sword, and war from the land, and I will make you lie down in safety.

19 And I will betroth you to me forever. I will betroth you to me in righteousness and in justice, in steadfast love and in mercy.

20 I will betroth you to me in faithfulness. And you shall know the LORD.

21 “And in that day I will answer, declares the LORD, I will answer the heavens, and they shall answer the earth,

22 and the earth shall answer the grain, the wine, and the oil, and they shall answer Jezreel,

23 and I will sow her for myself in the land. And I will have mercy on No Mercy, and I will say to Not My People, ‘You are my people’; and he shall say, ‘You are my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16, 19-20절)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srael?

(vv. 16, 19-20)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시나요? (23절)

What does God call Israel when Israel is restored? (v. 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턴한인교회, 김영훈(VA)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 배상철(VT)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Responses to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었던 때처럼 인도해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로보암(2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나라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번영하던 때였다는 겁니다. (왕하 14장) 다시 말하자면, 육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황이었기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골 골짜기'라는 표현과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신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18절)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1-22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모습' - 창세기 1장의 모습이자 에덴동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인 것이지요. 사람은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회복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은 상황적 변화가 아니라 근원적인 회복입니다. 근원적인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변화하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이들을 근원적인 회복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의 변화만을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근원적인 회복으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God spoke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He said He would make the Israelites realize their sins and lead them to restoration as they pay for their sins. He will make the valley of trouble become the door of hope, as in the day God led them out of Egypt. Interestingly, God's warning came when Israel was enjoying militaristic and economic prosperity under Jeroboam's reign. "In that day, I will make a covenant for them with the beast of the field and with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v. 18). "'At that time, I will willingly respond,' declares the Lord. 'I will respond to the sky, and the sky will respond to the ground; then the ground will respond to the grain, the new wine, and the olive oil; and they will respond to Jezreel (God's plants)'" (vv. 21-22).

According to God's plan, a restoration meant God and His people would communicate as heaven and earth speak to each other. The metaphor of men subduing the earth and animals means the restoration of the garden of Eden which is what God desires. Humanity wants complete healing from physical suffering, but God wants a whole restoration, not a circumstantial and temporal change.

God knew humanity would turn away from God if they didn't have a change of heart. Therefore, our God wants us to change wholeheartedly and completely. Let go of the world and change your whole heart to receive complete restora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8

2023 MAY
목요일 • Thu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Love the Adulterous
Wif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에게 도망친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찾아오라 하십니다.

🎵 새381장(통425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3:1-5

호세아 3장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랴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Reading Insight

God told Hosea to take back his wife who had run away to her lover.

🎵 I Wandered in the Shades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3:1-5	Hosea 3

1 And the LORD said to me, “Go again, love a woman who is loved by another man and is an adulteress, even as the LORD loves the children of Israel, though they turn to other gods and love cakes of raisins.”

2 So I bought her for fifteen shekels of silver and a homer and a lethech of barley.

3 And I said to her, “You must dwell as mine for many days. You shall not play the whore, or belong to another man; so will I also be to you.”

4 For the children of Israel shall dwell many days without king or prince, without sacrifice or pillar, without ephod or household gods.

5 Afterward the children of Israel shall return and seek the LORD their God, and David their king, and they shall come in fear to the LORD and to his goodness in the latter day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음녀’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인가요? (1절)

Whose love is the adulteress receiving? (v.1)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행 하라 하셨나요? (3절)

What did God tell Hosea to do? (v. 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애틀연합감리교회, 박세용(WA)
좋은씨앗교회, 정요셉(W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비움을 위한 많은 날이 필요합니다

It Takes Many Days to Be Ready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1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멜과 같은 처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호세아에게 고멜의 상황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르다 해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야 할 율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여전히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4절) 사사기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먹고 사는 것만 걱정했던 때, 심지어 이웃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죽음을 대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왕과 리더가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아두겠다고 하십니다. 일상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 죽음을 항상 눈앞에 마주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의 의미가 무의미로 바뀔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음녀 고멜을 사랑하려면 호세아의 마음에 호세아의 것들을 버릴 시간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내 안의 내 것은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이며,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고 실천됩니다. 이웃 사랑이 힘드시다면, 아직도 스스로 사랑하는 것들이 많음을 아시고 ‘은총으로 나아가는 시간’, ‘내 안에 나를 비워내는 시간’을 간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Love the woman who became an adulterer although she was loved by others” (v. 1). The apostasy of Israel can be compared to the adultery of Gomer. But for Hosea, Gomer wasn’t a metaphor but a reality. Furthermore, according to Moses’ law, Hosea wasn’t obligated to bring back Gomer. There was no legal basis forcing him to obey God’s command. This was irrational and illogical and this wasn’t love. But God commanded Hosea to do just that. God said,

“For the Israelites must live many days without a king or prince, without sacrifice or sacred fertility pillar, without ephod or idols” (v. 4). That meant going back to the time of the judges. That was when people barely survived. Death was prevalent and people experienced frequent afflictions.

That was the time there were no kings or leaders. God declared that those situations would come again. When the problems are no longer considered as problems, when death is frequent and when all things become meaningless, people finally seek God and kneel before God begging for His mercy.

For Hosea to love Gomer, he had to let go of his needs. We can’t love our neighbors if there is too much “me” living in me. Living in the grace of God means dying to myself and letting Jesus live in me, and that’s when God’s love is being fulfilled and practiced. If you have difficulty loving neighbors, you still love yourself too much. This is the time to move towards grace and empty out your needs from your heart. We all have to move towards gra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19

2023 MAY
금요일 • Fri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다

Abandoned and
Unfollowed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죄에 물들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만이 존재하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일 당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 새295장(통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4:6-10

호세아 4장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9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Reading Insight

God said Israel was stained with sin. He pointed out that there is nothing but evil in Israel and the priests were just as guilty. Thus, the people of Israel would not be able to avoid future shame.

🎵 Of Jesus' Love that Sought Me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4:6-10	Hosea 4

6 My people are destroyed for lack of knowledge; because you have rejected knowledge, I reject you from being a priest to me. And since you have forgotten the law of your God, I also will forget your children.

7 The more they increased, the more they sinned against me; I will change their glory into shame.

8 They feed on the sin of my people; they are greedy for their iniquity.

9 And it shall be like people, like priest; I will punish them for their ways and repay them for their deeds.

10 They shall eat, but not be satisfied; they shall play the whore, but not multiply, because they have forsaken the LORD to cheris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뒤따라 발생하나요? (2-3절)

What happens when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vv. 2-3)

마음에 음란함을 품으면 어떻게 되나요? (12절)

What happens when you harbor fornication in your heart? (v. 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박용규(WA)
맑은 물 펠로십 한인교회, 김재선(W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많아짐을 조심하세요

Don't Fall for Abundance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논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자 ‘죄’는 늘어나게 되었고, 죄가 늘어나자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도 많이 드리게 된 것이지요. 또한, 사람들이 속죄의 제사를 많이 드리자 제사장들은 속죄제물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며 얻는 제물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제사장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짐으로 써 그들의 마음에 죄악이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마음에 두 가지를(두 주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품으면 죄는 다스려지고, 그 반대의 경우엔 죄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에 무엇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십시오.

If we believe God created the universe with his words, there is no need to argue whether the chicken came first or the egg. However, if creation is denied, all things are under constant debate. God pointed out that when the knowledge of God is lost, there will be constant cursing, deceit, murder, theft and adultery. When the knowledge of God disappeared, sin increased. When sins increased, sin offerings were offered more frequently.

When people brought more sin offerings, the priest gained wealth. Priests were to guide people to live honorably, but they were rejoicing in receiving more sin offerings because they could take the meat which was left at the altar. Verse 8 records their attitudes, “They feed on the sins of my people and relish their wickedness.” When the knowledge of God disappeared from the hearts of the priests, their hearts accumulated more sins.

A man cannot have two masters. If a man accepts the knowledge of God, sins will be addressed. If a man rejects the knowledge of God, sins will bring destruction. Please look at your heart to see what is being increased and populat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0

2023 MAY
토요일 • Sat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God Left The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의 죄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었고, 남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새515장(새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5:1-7

호세아 5장

- 1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불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 2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 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 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 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 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같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 7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다

Reading Insight

The wickedness of the kings and the priests didn't stop. The sins of the leaders were polluting the nation, and the southern kingdom was no different.

🎵 Life Your Eyes and Look to Heaven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5:1-7	Hosea 5

1 Hear this, O priests! Pay attention, O house of Israel! Give ear, O house of the king! For the judgment is for you; for you have been a snare at Mizpah and a net spread upon Tabor.

2 And the revolvers have gone deep into slaughter, but I will discipline all of them.

3 I know Ephraim, and Israel is not hidden from me; for now, O Ephraim, you have played the whore; Israel is defiled.

4 Their deeds do not permit them to return to their God. For the spirit of whoredom is within them, and they know not the LORD.

5 The pride of Israel testifies to his face; Israel and Ephraim shall stumble in his guilt; Judah also shall stumble with them.

6 With their flocks and herds they shall go to seek the LORD, but they will not find him; he has withdrawn from them.

7 They have dealt faithlessly with the LORD; for they have borne alien children. Now the new moon shall devour them with their fiel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나요? (4절)

What was the result of not knowing God? (v.4)

어떤 죄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넘어지게 했나요? (5절)

What sins caused the fall of both the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s? (v.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황선중(WI)
애플튼사온연합감리교회, 정희권(W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올무가 되다

Becoming a Snare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했지만 제사의 핵심인 예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즉 제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일대일 예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의를 가르치고 지키며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제사장이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제사장이 제사를 주도하기 시작하자 왕들도 제사를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두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행위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셨지요. 하지만 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신상을 세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할 때, 우상을 따르는 올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올무에 걸리면 이웃들도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무엇이 '나 자신'에게 올무가 될지 살펴보십시오. 그리하여 우상숭배의 길에서도 벗어나시길 기도합니다.

The priests administered the sacrifice, but the sacrificial animal was prepared by the people offering the sacrifice. In other words, the sacrifice is a one-on-one ceremony between God who receives the gift and the person who brings the gift. The priest was a person who taught and assisted the rituals so that the sacrifices can be performed. However, at some point, priests took over the sacrifice. Having seen this, kings used their power and placed the priests under their authority. We are uncertain exactly when this started but this was the beginning of removing God from the hearts of people and the knowledge of God started to diminish in the nation of Israel and Judah.

Jeroboam's idolatry wasn't referring only to worshiping other gods. In 1 Kings 12, God made it known why he divided the kingdom into two. It was because high places were being built to worship God to prevent people from going to Jerusalem.

God never goes against His law. Therefore, people can understand God's will and way. However, if people only seek their interests before God's, they will be trapped in idolatry. If one becomes ensnared, others can also easily fall into it. See what can become a snare to me. I pray that you will liberate yourself from the possibility of being trapped in idol worship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1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본질을 향해 가는 신앙의 U턴

이준협 목사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GA)

20대 중반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먼저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차를 운전해야 여자친구를 사귄다”라는 사촌 형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보 때의 제 운전은 연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지금 아내가 된, 가슴 설레는 제 연인을 태우고 다니면서 운전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있던 초보 때의 실수, 지금도 웃음보 터지는 어이없는 실수도 있었죠.

당시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가 김포 방향에서 시작해 전방의 임진각까지 이어지던 ‘자유로’였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연인을 옆에 태우고 연애 활동의 로망이었던 자유로 드라이브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옆에 끼고 아름다운 도로를 드라이브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운전해서 가도 ‘U턴 코스’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은 고속도로에서도 아무 출구로 나가서 돌아오는 것이 쉽지만, 운전 초보 때는 U턴 코스가 나와야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여겼나 봅니다. 그런데 자유로는 미국의 고속도로처럼 상행선과 하행선이 나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습니다. 날이 컴컴해질 무렵, 군인이 경계를 서며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자유로의 그 끝에 닿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도 U턴 코스가 없었습니다. 경계를 서며 출입을 제한하던 군인이 “여기는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니 돌아가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돌아가려면 바리케이드 지역을 지나야 U턴 코스를 타고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한심하게 쳐다보던 군인 아저씨가 바리케이드를 치워 주고 나서야 무장병력이 지키던 경계 안으로 들어가 U턴 코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운전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던 길을 U턴 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길에서도 길을 잃으면 U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분명해야 잘못된 길로 들어선 줄 알고 U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단의 이슈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가 고민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현실의 복잡한 장에서 볼 수 없는 길을 위에서 ‘지도’로 내려다보면 더욱 단순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서가 친절하게 해답을 주기보다 수학적 공식처럼 답을 찾게 만들 때가 많기도 하지만, 해답의 핵심은 ‘무엇이 본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 고민이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킬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무엇이 우리를 이 시대의 본질적인 교회로 이끌 수 있는가?’로 고민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 상황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개혁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영문학자이며 동시에 캐나다 연합교회의 목사이기도 했던 ‘노스럽 프라이(Northrop Frye)’란 분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보니, 구약의 창세기에서 시작해 신약의 계시록으로 끝나는 성서가 전형적인 “U턴 구조”로 이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 타락 → 역사의 몰락으로 이어지던 하강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상승하며 완성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프라이는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의 삶도 성경의 “U턴 구조”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이 하강하던 죄의 자녀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갈 때,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해 상승하며 완성되는 거룩한 “U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개인의 삶이 본질을 따라갈 때 성경의 “U턴 구조”를 닮아갈 수 있다면, 교회의 미래도 본질을 따를 때 하강을 지나 다시 상승하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인지를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찾는 일이 성도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현상에서 본질을 향해 U턴 해 나아가갈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가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본질로, 본질로 돌아가 꼭 잡겨서 새로워지는, 그렇게 힘을 얻어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비전을 열어가는 그런 신앙공동체가 필요할 때입니다. 샬롬!

22

2023 MAY
월요일 • Mon

믿음 없는 고백

Confession
without Fai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며 이것이 살아갈 길임
을 알려십니다.

🎵 새272장(통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6:4-11

호세아 6장

4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
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
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
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
느니라

8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
득 찼도다

9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겔 길
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
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
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Reading Insight

God proclaims restoration through Hosea. God desires for people to know God and to understand that this is the way to live.

🎵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6:4-11	Hosea 6

4 What shall I do with you, O Ephraim? What shall I do with you, O Judah? Your love is like a morning cloud, like the dew that goes early away.

5 Therefore I have hewn them by the prophets; I have slain them by the words of my mouth, and my judgment goes forth as the light.

6 For I desire steadfast love and not sacrifice, the knowledge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7 But like Adam they transgressed the covenant; there they dealt faithlessly with me.

8 Gilead is a city of evildoers, tracked with blood.

9 As robbers lie in wait for a man, so the priests band together; they murder on the way to Shechem; they commit villainy.

10 In the house of Israel I have seen a horrible thing; Ephraim's whoredom is there; Israel is defiled.

11 For you also, O Judah, a harvest is appointed, when I restore the fortunes of my peopl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의 고백(믿음)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4절)

What does Israel's confession (faith) describe? (v. 4)

제사의 의미를 잃은 제사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9절)

What does the scripture describe about the meaningless sacrifice? (v. 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참 아름다운 연합감리교회, 김성근(WI)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이대규(W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행동이 결여된 믿음

Faith without Works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믿음의 고백과 신앙생활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제사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식이지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예식 보다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형식만 갖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죄 사함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7절)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이지요. 이는 ‘하나님을(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모습’(롬 1:28)이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두렵고 떨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고 여호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의 답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아십시오. 행동이 결여된 믿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믿음입니다.

The Israelites speak up.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v. 1), “Let us know; let us press on to know the Lord;” (v. 3). However, God does not accept the Israelites’ cry. It was because the Israelites’ words and actions did not match. It was because th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ife of faith did not coincide. God addresses the Israelites. “For I desire steadfast love and not sacrifice, the knowledge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v. 6). God emphasizes that the Israelites had not yet offered a complete sacrifice. Sacrifices are ceremonies offered by the people to God to repent of their sins, seek forgiveness, and obtain God’s mercy. Furthermore, God desired ‘realization of sin and abstinence from sin’ rather than ‘sin and repentance’. He wanted the full meaning of the ancestral rite than the ceremony of the ancestral rite. However, the people believed that if they offered formal sacrifices and gifts to God, they would automatically receive forgiveness of their sins. It was serving God as if he were an idol.

God refers to Adam’s failure to keep God’s covenant (v. 7). Adam’s sin was failing to keep the ‘Word of God’. This is a state of not wanting God (the Word) in one’s heart (Rom 1:28), as well as a lack of awe (fear and trembling) towards God. You cannot return to Jehovah and know Jehovah in this way, according to God. How do you serve God? Do you have faith in God? Understand that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must entail action. Faith without action is faith that idolizes God, faith that lacks reverence for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3

2023 MAY
화요일 • Tue

하나님께서로 돌아오지 아니하다

Not Return to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인 타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고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새280장(통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목성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7:8-16

호세아 7장

8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10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앓수르로 가는도다

12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 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 하리라

13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앗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엮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Reading Insight

It depicts Israel's political and social degeneration. Everyone, from the king to the common people, sins without hesitation and without even realizing it.

🎵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7:8-16	Hosea 7

8 Ephraim mixes himself with the peoples; Ephraim is a cake not turned.

9 Strangers devour his strength, and he knows it not; gray hairs are sprinkled upon him, and he knows it not.

10 The pride of Israel testifies to his face; yet they do not return to the LORD their God, nor seek him, for all this.

11 Ephraim is like a dove, silly and without sense, calling to Egypt, going to Assyria.

12 As they go, I will spread over them my net; I will bring them down like birds of the heavens; I will discipline them according to the report made to their congregation.

13 Woe to them, for they have strayed from me! Destruction to them, for they have rebelled against me! I would redeem them, but they speak lies against me.

14 They do not cry to me from the heart, but they wail upon their beds; for grain and wine they gash themselves; they rebel against me.

15 Although I trained and strengthened their arms, yet they devise evil against me.

16 They return, but not upward; they are like a treacherous bow; their princes shall fall by the sword because of the insolence of their tongue. This shall be their derision in the land of Egyp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13-14절)

Why is Israel not being saved?
(vv. 13-14)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16절)

What will be the end of Israel?
(v. 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몽고메리주님의 교회, 유혁재(AL)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A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교만한 믿음 I

Arrogant Faith I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수명이 있고 삶의 한계가 있는 이유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행 17:27)인데,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게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11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또한 “성심으로 나를(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14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문제 해결’이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울며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 연민, 자기애’에 빠져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함이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스스로를 위한 마음’이 조금씩 쌓이며 커진 것이지요.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마음이 조금씩 쌓여 커진 것이지요. 이로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교만’은 이스라엘을 구원에서 제외되게 합니다. 교만을 찾아내십시오. 일상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자기애, 자기 연민’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로써 교만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Even when neighboring countries invaded Israel, as represented by Ephraim, they did not seek God. God refers to them as ‘arrogant’. People have a lifespan and a lifetime limit because “that they should seek God, and perhaps feel their way toward him and find him” (Acts 17:27). but Israel did not rely on neighboring countries to grope to seek God. That is why God Himself said, “Ephraim is like a dove, silly and without sense, calling to Egypt, going to to Assyria” (v. 11). This is “arrogant” in front of God. God says “You have not called me (God) with a sincere heart, but you have cried out in bed, gathered over grain and new wine, and rebelled against against me” (v. 14), Israel must have wholeheartedly sought God. However, because God sees people’s hearts, what they desire is not God, but “resolving life’s problems.” As a result, despite crying and seeking God, he fell into “self-pity, self-love” and felt pity for himself, earnestly for food and drink, but not for God. This arrogance did not develop overnight. The ‘heart for myself’ gradually accumulated and grew daily. The mindset of ‘this much is fine’ gradually accumulated and grew. The ‘arrogance’ that has led to them not seeking God. As a result, this excludes Israel from salvation. Find your pride. Find the self-love and self-compassion that accumulates gradually in your daily life and overcome it with God’s word. I pray that you will abandon your arrogance and seek God’s salva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24

2023 MAY
수요일 • Wed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They Will Go Back
to Egyp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할 것임을 나팔이 곧 불려질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애굽과 앗수르를 섬긴 까닭이며, 이는 하나님을 잊은 죄의 결과로 세상을 의지하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 새322장(통2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8:8-14

호세아 8장

8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9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10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11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13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를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Reading Insight

It represents the sounding of the trumpet for the coming of judgment in Israel. Because Israel served Egypt and Assyria, they became dependent on the world as a result of their sin of forgetting God.

🎵 Gather Us in, Thou Love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8:8-14	Hosea 8

8 Israel is swallowed up; already they are among the nations as a useless vessel.

9 For they have gone up to Assyria, a wild donkey wandering alone; Ephraim has hired lovers.

10 Though they hire allies among the nations, I will soon gather them up. And the king and princes shall soon writhe because of the tribute.

11 Because Ephraim has multiplied altars for sinning, they have become to him altars for sinning.

12 Were I to write for him my laws by the ten thousands, they would be regarded as a strange thing.

13 As for my sacrificial offerings, they sacrifice meat and eat it, but the LORD does not accept them. Now he will remember their iniquity and punish their sins; they shall return to Egypt.

14 For Israel has forgotten his Maker and built palaces, and Judah has multiplied fortified cities; so I will send a fire upon his cities, and it shall devour her stronghol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제단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11절)

For what purpose was the altar built? (v. 11)

세워진 왕궁과 견고한 성읍들은 왜
무너지게 된 것인가요? (14절)
Why did the built royal palaces
and fortified cities collapse?
(v.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옥(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목회자를 위한 기도

교만한 믿음II

Arrogant Faith II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이 땅에 충만해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고센 땅은 애굽 안에서도 애굽인들과 떨어진 구별된 땅이었고,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도 종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종도 아니었고 ‘고센 땅에서 애굽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던 이스라엘이 후에 애굽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스스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스스로 좇으며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시며 물로써 죽음을 상징하는 ‘세레’를 받게 하였고,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며 종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힘센 적군을 만났을 때, 어김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나 주시며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셨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애굽(세상)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었기에, 또 세상을 의지했기에 애굽(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믿는 이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혹 애굽은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God's judgment on Israel was described as "I will return to Egypt." For the Israelites, Egypt was a very symbolic city. As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Abraham was fulfilled, the descendants of Jacob filled Egypt. In fact, even within Egypt, the land of Goshen was distinct from the Egyptians, and the Israelites' initial status was not that of a servant. They were not Egyptian slaves, and 'Israel, who lived apart from the Egyptians in the land of Goshen, later became Egyptian servants?' This illustrates the outcome of choosing a life of slavery. It is the result of pursuing both Egyptian and global culture on their own. As a result, God led Israel to the Red Sea and had them 'baptized' with water, which represents death. When Israel ran out of food, water, or faced a formidable foe, they yearned for Egypt and desired to return. They missed the days when they had to become 'servants' of Egypt in order to survive.

God gave Israel ten thousand words and made them understand them, but they thought God's words were strange (v. 12).

God did not make Israel "servants of Egypt (the world)," it was revealed. They returned to Egypt because there was no 'Word' in their hearts and they relied on the world (the world). Consider where the believers' course and way of life are heading, whether it is Egypt or no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5

2023 MAY
목요일 • Thu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벌하시다

God Remembers
and Punish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심판의 날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마실 것이 없고, 앓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 하게 됩니다.

🎵 새423장(통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9:10-17

호세아 9장

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
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 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
나 아이 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도다

13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
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14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
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
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
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
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16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
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
를 죽이리라

17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
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Reading Insight

It describes the day of judgment. They run out of wine, have nothing to drink, are taken captive to Assyria, and face a situation where they cannot have children.

🎵 Sins of Years Are Wash'd Away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9:10-17	Hosea 9

10 Like grapes in the wilderness, I found Israel. Like the first fruit on the fig tree in its first season, I saw your fathers. But they came to Baal-peor and consecrated themselves to the thing of shame, and became detestable like the thing they loved.

11 Ephraim's glory shall fly away like a bird-- no birth, no pregnancy, no conception!

12 Even if they bring up children, I will bereave them till none is left. Woe to them when I depart from them!

13 Ephraim, as I have seen, was like a young palm planted in a meadow; but Ephraim must lead his children out to slaughter.

14 Give them, O LORD-- what will you give? Give them a miscarrying womb and dry breasts.

15 Every evil of theirs is in Gilgal; there I began to hate them.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ir deeds I will drive them out of my house. I will love them no more; all their princes are rebels.

16 Ephraim is stricken; their root is dried up; they shall bear no fruit. Even though they give birth, I will put their beloved children to death.

17 My God will reject them because they have not listened to him; they shall be wanderers among the nation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호세아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14절)

What does Hosea ask of Israel who cannot cut off their sins? (v. 14)

14절의 고백에 담긴 간절함을 깊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세요.

Meditate deeply on the earnestness of the confession in verse 14 and share it.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김찬홍(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조형(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그들을 버리시다

God Abandons People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zakhar)”는 ‘(알아보기 위해) 표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상으로 비교의 대상이나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에서 “자카르”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될 만한 대상과 상황을 정해 놓고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때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죄 자체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니, 죄의 판단 기준도 변치 않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은 ‘음행’입니다. ‘음행’이란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묘사한 단어이지요. ‘부부관계’의 깨어짐, ‘둘이 한 몸 됨’의 깨어짐이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깨어짐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깨어짐을 지속하는데, 호세아서는 그 원인을 ‘자기애(나만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라고 명확히 보여줍니다. (4절) 자신만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울고 웃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벌하시며 끊어내시는데, 그 방법은 죄의 잉태를 막으시는 겁니다. (11-12절, 16절)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십니다. 이 또한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지켜내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Zakhar” is a Hebrew word that means “to express (to discover), to remember, to refer to.” The object or situation of comparison is determined in terms of meaning. By the way, God said in Ezekiel 18 that he would not do “zaw-kar”. In other words, we will not compare, and judge Israel based on a fixed target and situation. However, do not misinterpret God’s Word. God stated that He would not set a standard for judgment based on time, but He did not state that He would not remember sin itself. Because God is immutable, the standard for judging sin remains constant.

Hosea reveals the “sin” of fornication. Fornication is a term used to describe a person who commits a sin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Fornication is the breaking of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the breaking of the ‘two becoming one’. God remembers these wounds. And Israel’s brokenness continues, but Hosea clearly identifies the source as self-love (heart and actions that love only me)’ (v. 4). Only speaking and thinking for oneself, crying and laughing for oneself. By preventing their conception, God punishes and cuts off these sins (vv. 11-12, 16). He takes away his life in order for him to no longer sin. This is a different kind of love. Have a day to stay connected to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26

2023 MAY
금요일 • Fri

두 마음과 두 가지 죄

Two Hearts and
Two Si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은 번영을 통해서 주상(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징계를 선포하면서도 회복할 기회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 새531장(통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목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10:9-15

호세아 10장

9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10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11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애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4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 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벤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Reading Insight

In the midst of prosperity, the Israelites built more idol altars. God proclaimed the punishment upon the Israelites for their idol worship. However, God also gave them opportunities to repent and be restored.

🎵 Jesus Is Tenderly Calling Thee Home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10:9-15	Hosea 10

9 From the days of Gibeah, you have sinned, O Israel; there they have continued. Shall not the war against the unjust overtake them in Gibeah?

10 When I please, I will discipline them, and nations shall be gathered against them when they are bound up for their double iniquity.

11 Ephraim was a trained calf that loved to thresh, and I spared her fair neck; but I will put Ephraim to the yoke; Judah must plow; Jacob must harrow for himself.

12 Sow for yourselves righteousness; reap steadfast love; break up your fallow ground, for it is the time to seek the LORD, that he may come and rain righteousness upon you.

13 You have plowed iniquity; you have reaped injustice; you have eaten the fruit of lies. Because you have trusted in your own way and in the multitude of your warriors,

14 therefore the tumult of war shall arise among your people, and all your fortresses shall be destroyed, as Shalman destroyed Beth-arbel on the day of battle; mothers were dashed in pieces with their children.

15 Thus it shall be done to you, O Bethel, because of your great evil. At dawn the king of Israel shall be utterly cut off.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브라임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나요? (11절)
What kind of punishment did the Israelites who were called Ephraimites receive? (v. 11)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13-14절)
How did the Israelites respond and what were the consequences? (vv. 13-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접합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Plant Justice and Harvest Mercy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눅 16:1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이란 사랑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부부’의 관계임을 알려셨기에, 2절의 ‘두 마음’이란 음행이고 간음으로 해석되지요. 현대에선 ‘사랑’을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서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니지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선 ‘사랑’도 분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하며 이웃 여인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번영할수록 자신들의 번영만을 위해 제단을 더 쌓았고, 결과적으로 ‘벤아웬의 송아지(북이스라엘이 세운 신상)’와 ‘사마리아 왕(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대신하는 존재)’이라는 두 가지 죄까지도 범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였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12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나의 마음)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교해야 하는 상대적인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절대적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어떤 마음을 얻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Luke 16:13 say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you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you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Masters” in this verse means someone you love. In the book of Hosea, God and the Israelites were symbolized as a couple, a husband and a wife. Therefore in verse 2, two hearts mean adultery and infidelity. In modern society, “love” is regarded as something personal and is not categorized as right or wrong. Yet love in the face of a righteous God must be discerned and examined. Therefore, you cannot love God and at the same time love the world. If you love your wife, you cannot love the wife of your neighbor. This is the order of God’s creation. However, the Israelites built more idol worship altars as they became more prosperous. The Israelites committed two great sins – building the calf-idol of Beth Aven, the idol of the northern Israel, and supporting a Samaritan King (someone to replace David whom God anointed). These were consequences of not following the one and only God. God warned them in verse 12, “Sow righteousness for yourselves, reap the fruit of unfailing love.” This means that we should never carry two hearts but seek God’s unchanging love (heart) which never fails. In this world, the more you get, the more you want because we always compare ourselves to others who have more. But when you recover the power of God’s steadfast love, you will experience absolute satisfaction and peace no matter what situations you are in. All believers should examine their hearts to see what kind of mindsets and attitudes they hav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7

2023 MAY
토요일 • Sat

사람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God Who Leads Us
with the Line
of Peop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잊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각 처소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하십니다.

🎵 새311장(통185장) 내 너를 위하여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11:5-11

호세아 11장

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 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7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도

11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Reading Insight

The Israelites forgot the epic historical miracle of the exodus. Therefore, they lived life outside of God's mercy. Still God never gave up the Israelites. YHWH God promised that He will bring the Israelites back home and He will dwell in their houses.

🎵 I Gave My Life for Thee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11:5-11	Hosea 11

5 They shall not return to the land of Egypt, but Assyria shall be their king, because they have refused to return to me.

6 The sword shall rage against their cities, consume the bars of their gates, and devour them because of their own counsels.

7 My people are bent on turning away from me, and though they call out to the Most High, he shall not raise them up at all.

8 How can I give you up, O Ephraim? How can I hand you over, O Israel? How can I make you like Admah? How can I treat you like Zeboiim? My heart recoils within me; my compassion grows warm and tender.

9 I will not execute my burning anger; I will not again destroy Ephraim; for I am God and not a man, the Holy One in your midst, and I will not come in wrath.

10 They shall go after the LORD; he will roar like a lion; when he roars, his children shall come trembling from the west;

11 they shall come trembling like birds from Egypt, and like doves from the land of Assyria, and I will return them to their homes, declares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

Why did God call Israel through prophets? (v. 3)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12절)

How did Northern Israel and Southern Judah act before God? (v. 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사람의 줄=사랑의 줄

The Ties of People = The Ties of Love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아들’로 부르시며 과거를 회상하듯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깊고 오래되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2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4절)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삼하 7:14)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나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사랑을 실천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만족할 만큼 행동하여야 존중받고 사랑받았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며, 이도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잠 3:12) 행하는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를 깨달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In Hosea 11:1, God said, “When Israel was a child, I loved him, and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God refers to Israel as his own young child and remembers the past. This verse indicates that God’s love and care for Israel has been long and deep. Also this verse implies that the current status of Israel is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Israel. It is recorded what God has done to take back his beloved son. “But the more they were called, the more they went away from me” (v. 2). “I led them with cords of human kindness, with ties of love” (v. 4).

These verses echo what God promised David in 2 Samuel 7:14,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 When he does wrong, I will punish him with a rod wielded by men, with floggings inflicted by human hands.” God declared that even if the descendants of the Israelites would be punished with a human rod and life’s whip, the steadfast grace of God would not be taken from them even though they leave God. According to His promise, God executed His great love upon human beings.

God always uses people around us and teaches lessons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our life. This world tells us that we deserve love and respect as much as how we treat the other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way of God’s love has two sides –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the disciplining love from Proverbs 3:12, “The Lord disciplines those he loves, as a father the son he delights in.”

God’s ways are definitely different from the world’s ways. I pray that all of us recognize and confess this truth and follow God’s way to love and restore your relationship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8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기억하는 날(Memorial Day)에

장재웅 목사 (하늘비전교회, MD)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미국의 국경일인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원래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발생한 남북전쟁의 전몰자를 추모하는 날이었고 남북전쟁 때 전사한 전몰장병들에 대한 추모식이 열린 날이 5월 30일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버지니아주는 노예제도에 의한 남북전쟁 후 폐허의 위기에 빠졌으며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 참담한 기억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내 나라 내 형제자매를 잃었다'는 슬픔에서 오랫동안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 1868년 5월 5일 육군대장 존 로간(John Logan)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애도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무덤에 헌화할 것을 공식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기념식을 거행하며 그날을 'Decoration Day'라 명명하였습니다. 이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미국의 모든 전쟁에서 산화한 장병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루 쉬는 휴일이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서려있는 눈물 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메모리얼' 즉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돌비석을 세우게 하시고 후세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을 메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활동했던 제자들에게 사랑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제자들끼리 하늘나라를 선포해야 하는데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라고 베푸신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의 신학 수업을 마치고 30년에 가까운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과 전도사, 담임 목양의 여정 가운데 부교역자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지만 담임 목회자의 길을 걸은 이후 느끼는 잠시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무 보상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목회사역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목회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아픔의 기억들을 축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견디며 지나온 세월 속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억’, ‘소중한 보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건물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학위와 명예도 아니요, 목회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늘 기억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부입니다.(롬 16:2) 바울의 전도사역을 위해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뒷받침을 한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로마 감옥의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난 교인들에 대한 아름다웠던 기억은 바울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주었고 감옥 속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육신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기억속에 지금도 무릎을 꿇고 눈만 감으면 감동으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자신이 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꿈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도들, 극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수많은 아픔

의 기억 속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 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예레미야애가 3:19-23)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생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상했을 때 무척이나 낙심이 되었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은 자기 기업의 전부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만한 발자취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기억되고 기억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면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던졌던 전몰장병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삶과 사역 속에 만났던 사랑하는 이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보배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며 감사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빌 1:3)”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Phil 1:3).”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29

2023 MAY
월요일 • Mon

하나님께서로 돌아오라

Come Back to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 새276장(통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목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12:1-6

호세아 12장

- 1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 2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 3야곱은 모테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는 하나님과 겨루되
- 4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벰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 5여호와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 6그런즉 너의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Reading Insight

The sin of northern Israel and the resulting punishment is addressed. It is required for the repentance of Israel.

🎵 Take Me, Oh, My Father, Take Me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12:1-6

Hosea 12

1 Ephraim feeds on the wind and pursues the east wind all day long; they multiply falsehood and violence; they make a covenant with Assyria, and oil is carried to Egypt.

2 The LORD has an indictment against Judah and will punish Jacob according to his ways; he will repay him according to his deeds.

3 In the womb he took his brother by the heel, and in his manhood he strove with God.

4 He strove with the angel and prevailed; he wept and sought his favor. He met God at Bethel, and there God spoke with us--

5 the LORD, the God of hosts, the LORD is his memorial name:

6 “So you, by the help of your God, return, hold fast to love and justice, and wait continually for you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무엇인가요? (5절)

What name do we need to remember? (v. 5)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8절 참고)

Why did Ephraim leave God? (v.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또 회상하시다

God Remembers Again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요. 야곱은 팔족 한 그릇과 형의 장자권을 바꾸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지요”(창 28:20)라고 간청합니다. 이후, 야곱은 많은 가족과 재물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며 다시금 축복을 간청하고는 축복을 얻어냅니다. (창 32장)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상하십니다. (3절)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간청을 드렸던 ‘벧엘’, 집으로 돌아오며 천사에게 복을 구했던 ‘벧엘’을 언급하셨습니다. (3-4절)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기억을 떠올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야곱과 같이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기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야곱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새기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심을 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어린 시절,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기억해 내길 바라시며, 오늘 우리도 거룩함을 회복하길, 또 잊었다면 기억을 회복하여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Jacob was born by grabbing the heel of his brother, Esau. Esau sold the first born blessing to Jacob for one bowl of lentil soup. Jacob deceived his father, Isaac, took the blessing for the first born and fled to his uncle Laban's land. On the way there, Jacob encountered God and sought His mercy. He asked God's presence be with him and made his promise that he would serve God if God provided food, protection and clothes for Jacob and eventually lead him to come back home (Gen 28:20). Later Jacob returned home with great wealth and more family members. On his way, Jacob wrestled with the angel of God and desperately sought the blessings of God. Then Jacob finally received God's abundant blessings (Gen 32).

In today's text, God remembers Jacob (v. 3). God also mentions the location of "Bethel" where Jacob desperately sought God's protection and blessings on his way to his uncle Laban and when he wrestled with the angel on his way back home (vv. 3-4). The reason God remembers Jacob was how he deceived God and others and left. At the same time, God was still with Jacob all the way through and protected and provided for him. From this story, God wants the Israelites to come back home just like Jacob returned to his father Isaac's house. Time has passed but the love of God is always in the present tense. That same God wants us to remember our childhood, the first love we felt with God and all our prayers from the past. God desires us to restore holiness in our life and waits for us to remember how we have been blessed by God and eventually return home if we have forgotten our histor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30

2023 MAY
화요일 • Tue

에브라임의 죄

The Sin of Ephrai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 새375장(통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묵상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13:1-8

호세아 13장

1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2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3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4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내가 광야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7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 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8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Reading Insight

The Israelites worshiped idols and forgot God's grace. Therefore, they were punished by God.

🎵 Jesus, Savior, Pilot Me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13:1-8	Hosea 13

1 When Ephraim spoke, there was trembling; he was exalted in Israel, but he incurred guilt through Baal and died.

2 And now they sin more and more, and make for themselves metal images, idols skillfully made of their silver, all of them the work of craftsmen. It is said of them, "Those who offer human sacrifice kiss calves!"

3 Therefore they shall be like the morning mist or like the dew that goes early away, like the chaff that swirls from the threshing floor or like smoke from a window.

4 But I am the LORD your God from the land of Egypt; you know no God but me, and besides me there is no savior.

5 It was I who knew you in the wilderness, in the land of drought;

6 but when they had grazed, they became full, they were filled, and their heart was lifted up; therefore they forgot me.

7 So I am to them like a lion; like a leopard I will lurk beside the way.

8 I will fall upon them like a bear robbed of her cubs; I will tear open their breast, and there I will devour them like a lion, as a wild beast would rip them op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브라임'의 범죄는 무엇이었나요?
(2절)

What was the sin of Ephraim?
(v. 2)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알리고 계신가요? (4절)

What did God proclaim about
Himself? (v. 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There Is No Savior but Me

이삭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자신이 꿈 꾸며 말미암아 형제들의 미움을 얻게 되어 결국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혔고(창 39장), 이곳에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모든 나라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얻은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지요. (창 41:52) 미움을 받아서 환난을 살았던 요셉의 삶이 회복되어 애굽에서 번영을 맞이하는 순간,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정했습니다.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에서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각종 가축이 풍성해지고 은과 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많아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신 8장)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란 이름처럼 번영을 맞이하게 되었고, 경고의 말씀처럼 소유가 많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6절) 요셉의 시대부터 호세아 시대까지 약 700년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 구원자 이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사시길 기도합니다.

The 11th son of Jacob, Joseph, was sold to be a slave in Egypt because Joseph's brothers hated him after telling them his dream. After arriving in Egypt, Joseph went through very difficult times and ended up being thrown into prison (Gen 39). He, however, had a great opportunity to interpret the complicated dream of Pharaoh and eventually became the 2nd in command, the prime minister of Egypt. After the 7 consecutive years of prosperous harvest, Egypt and the surrounding area faced 7 consecutive years of poor and lean harvest. During this time, Joseph was able to meet his brothers and his father, Jacob, who came to Egypt to buy some grain. Joseph realized that all these things happening in his life were in God's plans and God never left him. Joseph's second son's name was Ephraim and the meaning of his name is "It is because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 (Gen 41:52). When Joseph realized the purpose of his suffering and hatred from his brothers was part of God's great scheme for the salvation of the Israelites, Joseph's life in Egypt was redeemed and he praised God's presence for his prosperity and named his second son "Ephraim."

When the Israelites were taken out from Egypt by Moses, God gave words of promise to them that if they were obedient to God's commands, they would be prosperous in the land of Canaan. God warned the Israelites that they might forget God when they "eat, are satisfied when they build fine houses and settle down, and when their herds and flocks grow large and their silver and gold increase and all they have multiplied, then their hearts will become proud and they will forget the Lord God who brought them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Deut 8:12-14).

Israelites indeed experienced wonderful prosperity according to the meaning of the name Ephraim and they became arrogant before God because their possessions multiplied consistent with the warning God gave (v. 6). The 700 hundred years from the time of Joseph until the prophet Hosea is the evidence that human history is in the great scheme of God's sovereignty. At the same time, God leads humans to realize that sovereign God is the one true Redeemer. I pray that we obey the powerful Word of our Redeemer today.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PA)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 박성순(P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31

2023 MAY
수요일 • Wed

여호와와 진노가 떠나다

The Wrath
of God Lef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 새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목성본문

통독본문

호세아 14:1-9

호세아 14장

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 우리가 앓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8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Reading Insight

God declared the restoration of Israel through the prophecies of Hosea to command the Israelites to repent. Hosea's prophecies admonished the Israelites to return to God.

🎵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Meditation	Reading Plan
Hosea 14:1-9	Hosea 14

- 1**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for you have stumbled because of your iniquity.
- 2** Take with you words and return to the LORD; say to him, "Take away all iniquity; accept what is good, and we will pay with bulls the vows of our lips.
- 3** Assyria shall not save us; we will not ride on horses; and we will say no more, 'Our God,' to the work of our hands. In you the orphan finds mercy."
- 4** I will heal their apostasy; I will love them freely, for my anger has turned from them.
- 5** I will be like the dew to Israel; he shall blossom like the lily; he shall take root like the trees of Lebanon;
- 6** his shoots shall spread out; his beauty shall be like the olive, and his fragrance like Lebanon.
- 7** They shall return and dwell beneath my shadow; they shall flourish like the grain; they shall blossom like the vine; their fame shall be like the wine of Lebanon.
- 8** O Ephraim, what have I to do with idols? It is I who answer and look after you. I am like an evergreen cypress; from me comes your fruit.
- 9** Whoever is wise, let him understand these things; whoever is discerning, let him know them; for the ways of the LORD are right, and the upright walk in them, but transgressors stumble in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의 열매는 어떤 모습인가요? (3절)

What did the fruits of Israel's true repentance look like? (v. 3)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4-5절)

What were the blessings for the people who offered the fruit of their lips? (vv. 4-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필라등대교회, 조병우(PA)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선우혁(RI)
목회자를 위한 기도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Offer the Fruit of Your Lips!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은 정확히 시점 간에 대해 모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는 시점은 이미 죄를 지은 상태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보류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죄의 미래적 시점이고 죄를 깨달은 시점은 죄의 과거적 시점이기 때문에 죄와 구원의 시점이 시간상으로 무엇이 먼저인지가 모호하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수많은 제사들도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온 경우들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이미 지은 죄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지 않았음을 깨달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의였던 것입니다. 시점들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회개'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미 열어 놓으신 문이고, 동시에 참회한 사람에게 허락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이스라엘에게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란 한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죄의 고백이자 그에 따른 다짐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 용서받을 기회, 다시 거룩함을 입을 기회가 있음을 확인해 주신 것이지요. 믿는 이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이미 주어진 기회를 얻고, 이러한 기회로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참된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루, 주신 기회를 온전히 따르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It is an ambiguous expression that only a person who repents their own sin is saved since we do not know the exact timeline of "repentance." In many cases, we repent our sins at the moments when we were sinning and at the same time God has withheld the consequences of our sins. If God foretells our future sins, the sins are in the future tense and when we realize our sins, those sins are in the past tense. It is not clear which one comes first chronologically. The books of Exodus and Deuteronomy are full of the sacrificial offering in which people who sinned came to ask forgiveness when they realized that they sinned. Therefore, the sacrificial offering for those who have sinned but have not received punishment for their sins could be suggested and given opportunities to offer their true repentance to God.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repentance" is the opportunity for a person who sinned to come before God regardless of the timeline. Redemption is the already opened door for all sinners to come before God and the opportunities for people who truly repent their sins.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who sinned to offer the fruit of their lips. The "fruit of your lips" is a person's confession of their sin and the changed (transformed) behaviors and life patterns that result. This is a picture of true repentance. This also confirms the fact that the Israelites still had chances to repent, to be forgiven and to clothe themselves with holiness. The life of believers is the picture of receiving the already given opportunities and living out these kinds of blessings every day. We are called to offer the fruit of our lips to embrace the opportunities of true repentance to learn God's characteristics and to rely on God's mercy to complete the gift of salvation which God has prepared for us. I pray that you fully and gratefully follow the God-given opportunity of grace to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①

②

③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소그룹 교재

2023
05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의 기도 I-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 받다



새337장(통363)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338장(통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 342장(통395) 너 시험을 당해

여는 질문

하루에 몇 번의 기도를 하시나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본문 이해

학자들의 연대기 분류에 따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나이가 대략 15세 정도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침략을 당하며 여호아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어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로써,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남유다 왕의 가문과 신하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가며 남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어린 나이에 직접 목격했지요. 또한 부모와 떨어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가혹한 상황에 어린 다니엘과 친구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음 맞이한 사건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 1:8)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며, 심지어 어린 나이에 왕의 명령과도 같은 왕궁의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매우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단1:17)고 기록되어 있으니 결론적으로 이해한다면 ‘손해 보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왕궁의 법도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다니엘은 뜻을 세울 때부터, 혹은 그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꿋꿋이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들을 해석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벨사살 왕의 사건까지 진행되면서 다니엘의 삶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지요.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모함하려고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단 6:7)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구하다’를 ‘Pray(기도하다)’로 번역되었고, ESV 성경에서는 신에게 드리는 ‘Petition(청원, 탄원)’으로 번역되었기에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공격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사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루 세 번 드리고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들을 해석하기 전부터, 뜻을 세운 다니엘은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 '볼모로 끌려왔지만 총리가 된 것'을 감사했을까요? 어떤 뜻을 세웠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수많은 환상을 보이시며 미래를 알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지난 과거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분명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를 향한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다니엘은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함께하실 것을 믿게하시니 감사합니다'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까지도 알게 하신 것이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가 모든 믿는 이들의 감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 속으로

- 다니엘이 맞이하게 된 시험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7절)
-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10절)

삶 속으로

-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면, 그 감사는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 365일 가운데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숨겨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암송 구절 | 다니엘 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녀와 나눔

흔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있나요?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II - 참된 회개의 기도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새366장(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는 질문

여러분의 기도엔 어떤 단어들 이 반복되나요?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 이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가울 구원’ - ‘미래적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매우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기도자로서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3절) 포로기가 끝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쁜 일이지만, 다니엘은 포로기의 끝을 기다리며 회개의 자세를 먼저 취합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순간을 ‘깨끗함 - 거룩함’으로 맞이하려고 한 것이지요. 둘째로, 다니엘은 죄를 자세히 고백합니다. ‘포로기’라는 어려움이 생겨난 이유와 원인에 대해 기도의 고백 가운데 그 내용을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5-6절) “여호와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0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자의 대표성이 다시금 강조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것은 기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세였지요. 모세가 그와 같았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셋째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4절)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7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며.” (15절) 기도자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교만(자기를 높이며 자기애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8절) 다니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반복하듯(왕상8장), 성전과 성막의 의미를 언급하듯(신 12장),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현재도 유효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구원임을 확인하려는 듯, 구원은 ‘사람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훈련되고 단련된 겸손한 기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즐겨워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23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구조 및 내용을 다시금 점검하시는 기회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로 단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죄, 범죄, 패역, 행악, 반역’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6절, 10-11절)
- 다니엘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루는 것(벌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7절, 8절, 16절)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신다고 하십니다. (6, 10절)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된 존재는 누구일까요?
- 하나님의 종된 존재가 참인지? 전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7, 11절 참고)

암송 구절 | 다니엘 9:18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녀와 나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너의 고민은 무엇이니?

이스라엘 -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나라가 되다



새524장(통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오오
새528장(통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는 질문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히 나누어 주세요.

본문 이해

때때로 성경 속 사건들은 너무 극단적인 전개를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에게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며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과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을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신이라 칭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구별된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고, 죽은 사람들은 '형제, 친구, 이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출 32:29) 이 사건이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들이 헌신한 사건(자신을 내어드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된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아들들과 형제들을 직접 죽이며 인간적인 고통과 갈등, 그리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가족과 친구를 죽여야 하는 사건은 평생동안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으로 "왜, 이들만 인가? 왜 내가 죽여야 하는가?"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많은 것을 진멸케 하시고 일부는 여호와와 공간에 널도록 하시며 백성들에게는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손을 땁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재물들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돌을 던지고 불사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에 참여한 것이지요. 분명히 아간의 형제들, 이웃들은 "왜 이들만 인가? 왜 내가 죽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진멸합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면서 대적하는 이들을 진멸(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앴)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마음 속으로 "사람 죽이는 것 그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죽여야 하는가?"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장에 기록된 호세아의 상황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

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왜 나여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위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름으로 별다른 인간적인 고민없이 이해되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 속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고통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가 깨달아 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기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는 결정을 어렵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이상일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몇번의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을 상대하시기에 하나님의 아픔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자녀를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온 세계라는 자녀를 얻으셨기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왜 나여야만 하는가?”하는 고민을 내어 뱉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여야만 한다”고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과 그 뜻은 무엇인가요? (4-9절)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려 하나요? (7절)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최종적인 목적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10절)
-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긴 단어인가요?

암송 구절 | 호세아 1: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자녀와 나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시에,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게 나누어 주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새301장(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는 질문

소중히 아끼던 물건을 잃었을 때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본문 이해

하나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면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며 슬퍼할까요? 맞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 할 것입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고 또한 많은 이들의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린 아들’로 묘사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오래 되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호세아 12장에서는 아굽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기억하고 있음을 언급하셨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좋아할 이유,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할 만한 근거는 없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해결받아야 할 일이 있음을 암시하신 겁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3절)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끊어내고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시려고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스스로의 손에 의지하여 스스로 만든 것을 향해 절하는 것을 고치고자 이스라엘을 이방의 나라들에게 잠시 동안 맡기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대별로 지속되어 가는데, 그 이유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스스로의 손을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습성(죄의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된 습성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국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문제인 우상숭배도 고침받게 될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현대에 누가 호세아처럼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 가정이 깨어졌을지라도, 누구도 호세아를 정죄하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 특별히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는 죄'의 문제는 부부가 갈라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근본적인 우상숭배의 문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모든 가정 내의 문제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는 죄'에서 시작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까요? (2-3절)
-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3-4절)

삶 속으로

-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며 나누어 주세요.
(5-8절 참고)
-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며 나누어 주세요.
(9절 참고)

암송 구절 | 호세아 14: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녀와 나눔

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Daniel's Prayer I – Recognized as a Man of Prayer



I Must Tell Jesus
Nearer, my God, to Thee
Yield Not To Temptation



Opening Discussion

How many times do you pray a day? Share some of the contents of your prayer.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ccording to scholars' chronological classifications, Daniel was taken captive to Babylon when he was about 15 years old. When southern Judah is invaded and King Jehoiakim is taken to Babylon, young Daniel and his friends are taken to Babylon with him. This reveals how the victorious Babylonians are taking the children of the king of Southern Judah and their servants as pawns, making Southern Judah a vassal state of Babylon. Imagine the feelings of Daniel and his friends. They witnessed the horrors of war firsthand at an early age. Young Daniel and his friends must have been terrified by the harsh conditions of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and taken to Babylon. Under miserable circumstances, the first incident Daniel and his friends encountered was to reject the king's orders.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and he asked the chief official for permission not to defile himself this way" (Dan 1:8). Daniel's situation is so distressing that it even seems more reckless to have violated the king's orders at such an early age. Through this event, even if it is written that God "ga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ll kinds of literature and learning" (Dan 1:17), in the end it may not be a "loss," but he would not have rejected the royal court's laws in anticipation of this outcome. Clearly, Daniel had faith to kneel one-on-one before God and ask for supplication at or before the time he made his decision.

As Daniel interprets King Nebuchadnezzar's dreams, Daniel's friends are thrown into the furnace and the events of King Belshazzar unfold, Daniel's life is built more firmly in faith. Through this process, Daniel is thrown into the lions' den during the reign of King Darius. The chief ministers and dignitaries of Babylon were jealous of Daniel and sought permission from King Darius to frame him to "enforce the decree that anyone who prays to any god or man during the next thirty days, except the king, shall be thrown into the lions' den" (Dan 6:7).

In the NIV Bible, "ask" is translated as "pray" and in the ESV Bible it is translated as "petition" to God,

indicating that the prime ministers and dignitaries attacked Daniel's prayer. In other words, among the Gentiles, Daniel was recognized as a man of prayer to God. Moreover, Daniel's prayer was a "prayer of thanksgiving." Here we must ask. What kind of prayer of thanksgiving was Daniel saying three times a day? Even before interpreting King Nebuchadnezzar's dreams, what prayer of thanksgiving did Daniel offer when he made up his mind? Was he grateful to survive the war or to be taken hostage but to be prime minister? What was God's will that caused Daniel to have many visions of the future? Daniel's prayer of thanksgiving would not have been a prayer of thanksgiving to the present, looking only to the past. Daniel's prayer must have been a prayer of thanksgiving for the future, including the past and present. Thus, Daniel, the man of prayer, prayed, knowing that he would be thrown into the lions' den. He would have said a prayer of thanksgiving for God's guidance and thanksgiving for God's protection. Instead of saying, "Thank you for nothing," Daniel was praying, "Thank you for making me believe that you will be with me in anything." That's why God even gave him the future. I earnestly hope that Daniel's prayer of thanksgiving to God will be a prayer of thanksgiving for all believers.



Into the Word

- How long was Daniel's test? (v. 7)
- How is Daniel praying? (v. 10)



Into our life

- What prayer did you say to God today? If you said a prayer of thanksgiving, was it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tense?
-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given a situation (like Daniel's) in which you could not be penalized if you did not pray to God for only 30 days out of 365 days? (What if you have to hide your faith to avoid punishment?)



Memory Verse | Daniel 6:10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Sharing with your children

Did you do anything different from what you thought you should do so as not to be scolded? Describe how you felt.

Daniel's Prayer II – A Prayer of True Repentance



Sweet Hour of Prayer
Open My Eyes, that I May See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Opening Discussion

When you pray, what words are repeated in your prayer? What prayer habits do you hav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aniel learned from the scriptures,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given to Jeremiah the prophet, that the Babylonian captivity would end soon and he began to pray about it. His prayer was a prayer of waiting. It was for the coming salvation and future restoration. Daniel's prayer was structured through format and content. First, Daniel prepared the format of how he would enter the prayer by fasting and putting on sackcloth and ashes to enter into the prayer of petition (v. 3). Celebrating the end of captivity seemed appropriate but instead, he composes himself with the attitude of repentance. As he awaits restoration, he readies himself with holy consecration.

Second, Daniel confesses all of his sins without withholding anything. He acknowledges the reason for the captivity. "[W]e have turned away from your commands and laws. We have not listened to your servants, the prophets, who spoke in your name to our kings, our princes and our fathers, and to all the people of the land" (vv. 5-6).

Third, he was also acknowledging God's attributes in his prayer. "O Lord, great and awesome God who is faithful to his covenant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v. 4). You are righteous, O Lord, but we are humiliated this day (v. 7). O Lord our God, who brought your people out of the land of Egypt with great power and made a name for yourself that is remembered to this day—we have sinned and behaved wickedly (v. 15). Knowing the persona of the one who receives the prayer is vital to guard against arrogance (exalting oneself or indulging in self-conceit and self-pity).

Lastly, Daniel shows how we should reclaim God's covenant. Listen attentively, my God, and hear! Open your eyes and look at our desolate ruins and the city called by your name. For it is not because of our own righteous deeds that we are praying to you, but because your compassion is abundant (v. 18).

Daniel followed the pattern of King Solomon when the king offered the prayer of dedication as he

finished the temple construction (1 Kgs 8). His intent in using the expression “a city named by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temple and the curtains” was to make a petition to reinstate God’s covenant and ask God to make it valid for His people. Also, he humbly acknowledged before God that it is not human righteousness that will save, but that the righteous will be saved through God’s mercy. This is a product of a humble person who was trained and disciplined with thanksgiving and fear of the Lord. We need to be reminded that these are the prayers that will move God’s heart. It will move God’s heart to answer our prayers and God will receive it with delight (v. 23). I pray that we can learn from a well-formatted and good content prayer of the prophet Daniel. We also can be disciplined in our prayers so that our prayers will be answered according to God’s perfect plan.

Into the Word

- What was the cause of sin, crime, disobedience, evil acts and rebellion which were confessed in Daniel’s prayer? (vv. 6, 10–11)
- What does Daniel mean by paying the price (being punished) for sin? (vv. 7, 8, 16)

Into our life

- God delivers his Words through God’s servant prophets. (vv. 6, 10) Then who are the servant prophets giving God’s words?
- Do you believe that there are true servants of God? How can we verify what is God’s Word or not? (v. 7, 11)

Memory Verse | Daniel 9:18

O my God, incline your ear and hear. Open your eyes and see our desolations, and the city that is called by your name. For we do not present our pleas before you because of our righteousness, but because of your great mercy.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do you pray? What worries you the most when you pray to God?

Israel Turned Away From Jehovah and Became a Nation of Adultery



Come to the Saviour, Make No Delay
O, Come Home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Opening Discussion

Read Hosea 1:2 and share your honest thoughts.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Some of the incidents in the Bible are so extreme to the point of being disturbing. The first example is from Exodus 32. After Moses' delayed return from Mt. Sinai as he met with God, the people and Aaron made a golden calf – calling it a god that brought them out of Egypt – and offer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before it. They ate, drank and celebrated. The result of this worship caused the death of 3000 people and the dead were recorded as brothers, friends and neighbors. At the end of this incident, Moses said, "You have been consecrated today for the Lord, for each of you was against his son or his brother, so he has given a blessing to you today" (Exod 32:29). According to Moses, this was the time the Levites were setting themselves apart and gave themselves to the Lord.

By the way, this may have been a moment filled with conflict as the emotions of sorrow and pain were experienced when they had to kill their sons and siblings who had committed idolatry. Killing family and friends could have been the most tragic event for them. They must have thought, "Why them? Why do we have to kill them?"

The second example comes from Joshua 2. When the city of Jericho was destroyed, God commanded them to bring valuable objects to God's treasury of the Lord's house, and people were not to keep them. But Achan stole the goods. Because of his action, Achan and his family had to be punished. Like the first incident, Joshua and the Israelites took part in the killing of a man and his family. Most likely, the siblings of Achan and his neighbors may have thought, "Why them? What about me?"

Second, in Joshua 10, Joshua and his army destroy numerous nations. They had to annihilate those nations, and while doing it, they may have thought, "I want to stop killing." As they were witnessing the death of many people, they may have wondered, "Why do I have to kill?" Lastly, this is the story

of Hosea from Hosea 1. When he heard from God, "Go take yourself an adulterous wife and children of unfaithfulness." Hosea may have questioned, "Why me?"

All of the above incidents were carried out under God's judgment, and we may accept this without much thought. However, the pain of the people who were engaged in the battles can't be overlooked. After much contemplation and reflection, I gleaned something. I believe it was a hard decision for God to take peoples' lives. God had no delight in this. He is the one who gave life and took away lives and God's pain and agony can't be fathomed.

Hoses took Gomer, the prostitute, as his wife and had three children: Jezreel, Loruhamah, and Loammim. God took in Israel and the children of all nations. God's heart may have been more afflicted than Hosea's. In our daily life, sometimes we question, "Why me" and we hear God saying, "Why not you?" God endures all things, and I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have the heart of our heavenly Father.



Into the Word

- What are the names of Hosea's children, and what do they mean? (vv. 4-9)
- How does God want to save Israel? (v. 7)



Into our life

- What was the final purpose and lesson that God was trying to achieve through Hosea? (v. 10)
- What is the overall meaning of "becoming a child of God?" What does the expression "child of God" mean to you?



Memory Verse | Hosea 1:10

Yet the number of the children of Israel shall be like the sand of the sea, which cannot be measured or numbered. And in the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it shall be said to them, "Children of the living God."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do you think parents feel when their child doesn't comply?

At the same time, share how children feel when their parents disagree with them.

Israel, Come Back to YHWH



God's Great Grace It Has Brought Us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Opening Discussion

Share how you felt when you lost your precious and beloved treasure(s).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o would be sad and disappointed most if the kingdom of God is getting destroyed? You are right. The King of that kingdom would be sad and heartbroken most if the kingdom is getting destroyed. It is absolutely impossible to think that a king wants his own kingdom to be destroyed since the king is the very representative of the whole authority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revere the king. Likewise, it would be God who would be sad and heartbroken most for the destruction of Israel. In Hosea 11, God described Israel as a young child and informed that God's love and care for Israel has been long and deep. In Hosea 12, God mentioned that He remembers the life journey of Jacob until Jacob confessed that YHWH was his God. Therefore, God confirmed that He has been faithful to keep the covenant which God made with Abraham. In other words, there is no reason why God would be pleased or want the destruction of Israel. However, God continually proclaimed judgment over Israel and spoke through various prophets that Israel would be destroyed. There is an underlying basis why God would want to solve some fundamental problems of Israel through the judgments. It is idol worship. God wanted to punish the Israelites to cut off from their every words and deeds related to idol worship which is stated in Hosea 14:3 "Say 'Our gods' to what our own hands have made." In other words, God did not pour down judgment to destroy the Israelites, but God wanted to heal the land of Israel who worshiped, bowed down and relied on what they made with their hands. So God allowed them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ir neighboring countries temporarily. Despite the deep consideration and faithfulness of God, the Israelites repeated their mistakes. The judgments of God continued through generations since the Israelites never gave up the sinful ways of relying on what they made with their hands. This became their sinful habits. God revealed His steadfast love which desired to repair the sinful nature and habits of Israel through the dramatic marriage between the prophet Hosea and the prostitute Gomer. And even in the midst of the infidelity and broken relationship between

Gomel and the prophet Hosea, God commanded them to keep their marriage. This is a revelation and commandment that eventually the long term and fundamental sinfulness of idolatry in the Israelites would be healed by God's faithfulness and steadfast love.

Who would keep their marriage and family in modern society if they were in Hosea's situation?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No one would blame nor judge modern day Hosea if he breaks up his marriage and family. God wants to instruct us that getting divorced due to the issue of relying on what we made with our own hands will not solve any problem. Only the steadfast love of God which will never give up on anyone in any case will heal the idol worship issues in any relationship. Let us learn that every issue in family relationships starts with idol worship – relying on what we made with our own hands. Only the way of God which heals these problems with His own steadfast love will solve our family problems. I pray that your family relationships be restored by God's steadfast love.

Into the Word

- What do we need to bring and what kind of mindset do we need to have when we approach God? (vv. 2-3)
- What does it mean to be healed by God? (vv. 3-4)

Into our life

- Imagine what will happen in your life when God's work of restoration starts. Then share with the group. (vv. 5-8)
- Imagine the cases when the restoration of God's works began but was rejected or not completed in some people's lives. Then share with the group. (v. 9)

Memory Verse | Hosea 14:3

Assyria shall not save us; we will not ride on horses; and we will say no more, 'Our God,' to the work of our hands. In you the orphan finds mercy.

Sharing with your children

Read verse 3 and share when in our lives we could be "saying 'Our God' to what our own hands have made."

**MISSIONARY
OF THE MONTH**

***ZALDIVAR,
RUEL JADE
LUCAS***



Country

Ireland

Advance

#3022681

Serving At

Surf Project

Home Country

Philippines

Contact info

**rzaldivar@
umcmmission.
org**

Ruel Jade Lucas Zaldivar is an international Global Mission Fellow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engaged in a two-year term of service.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takes young adults ages 20-30 out of their home environments and places them in new contexts for mission experience and service. The program has a strong emphasis on faith and justice. Global Mission Fellows become active parts of their new local communities. They connect the church in mission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y grow in personal and social holiness and become strong young leaders working to build just communities in a peaceful world.


Ruel is a member of First Nowell United Methodist Church, M'Lang, North Cotabato, Philippines, in the Philippines Central Conference. Ruel holds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early childhood/Christian education from Southern Philippines Methodist College, Kidapaw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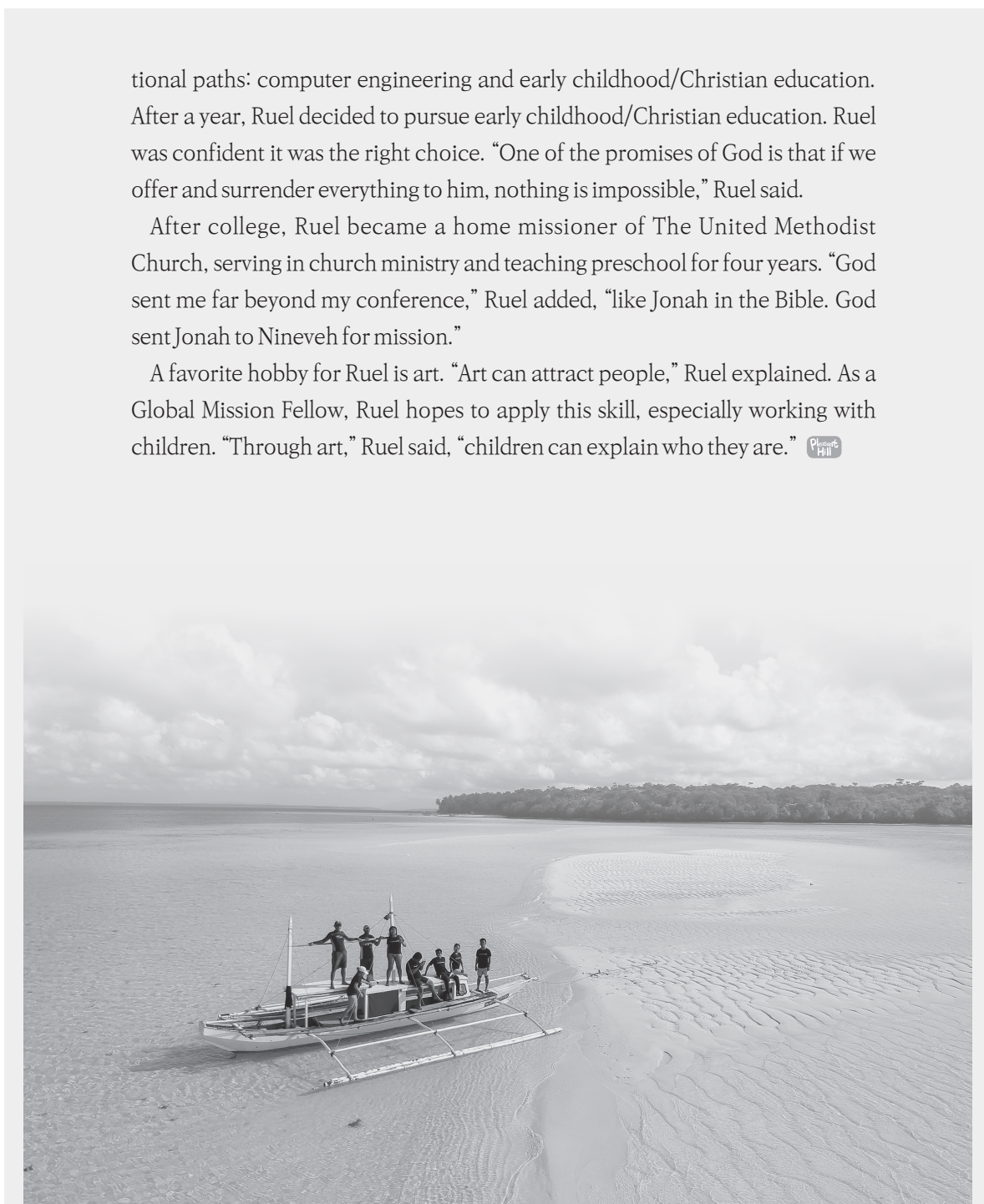
Ruel has fond childhood memories of accompanying their grandmother to Sunday worship. As a teen, Ruel was the president of the church youth group. "I encouraged healthy spiritual growth by serving with the youth, leading devotions and activities," Ruel said.

Entering college, Ruel considered two voca-

tional paths: computer engineering and early childhood/Christian education. After a year, Ruel decided to pursue early childhood/Christian education. Ruel was confident it was the right choice. “One of the promises of God is that if we offer and surrender everything to him, nothing is impossible,” Ruel said.

After college, Ruel became a home missionar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in church ministry and teaching preschool for four years. “God sent me far beyond my conference,” Ruel added, “like Jonah in the Bible. God sent Jonah to Nineveh for mission.”

A favorite hobby for Ruel is art. “Art can attract people,” Ruel explained. As a Global Mission Fellow, Ruel hopes to apply this skill, especially working with children. “Through art,” Ruel said, “children can explain who they are.” 



“이집트-가나안 -광야-바벨론”



이진희 목사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의 저자)

1. 이집트 = 육에 속한 사람

[도표 1]은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래전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2. 광야 =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도표 2]는 광야를 지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도표 1]의 육에 속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육에 속한 사람(이집트)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광야)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기도한다.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던 일들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바로에게 요구했었다. 그냥 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였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집트에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들이 아닌가? 그들은 아직 옛사람을 벗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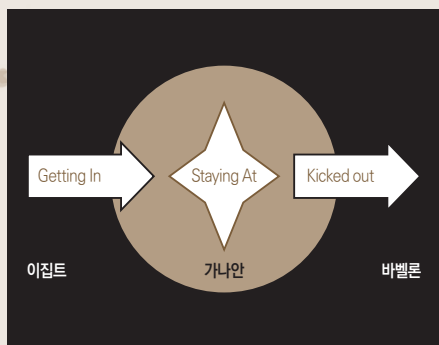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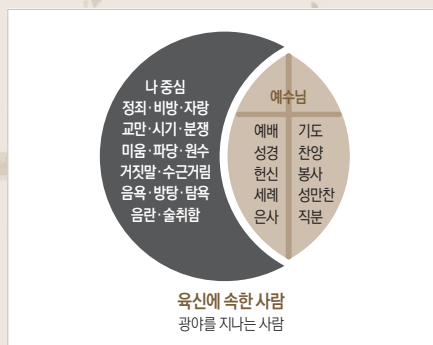


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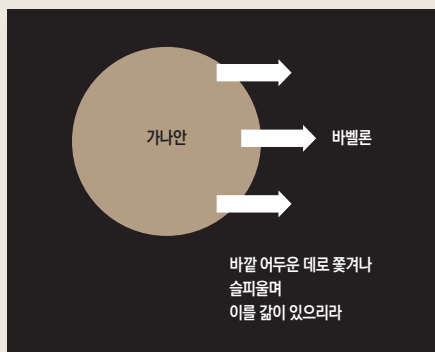


어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이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육체에 속한 옛사람을 모래 구덩이에 파묻게 하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광야에서 육에 속한 옛사람을 모래 구덩이 속에 묻지 못하고 광야 구덩이에 묻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내가 옛 자아를 모래 구덩이에 묻지 않으면 그 옛 자아가 우리를 모래 구덩이에 파묻을 것이다.

3. 가나안 = 영에 속한 사람

[도표 3]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습이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옛사람도 벗어버렸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광야를 지나면서 육의 사람으로 바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를 지날 때처럼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광야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집트에서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광야에서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러

도표 3



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바알도 섬겼다. 온 백성이 다 바알 종교에 빠져버렸다. 그런 일은 이집트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으니까 우상(금송아지 신)을 섬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도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렇게도 많이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나안 사람들과 똑 같은 죄를 짓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같이 섬겼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도표 4]처럼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4. 가나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바벨론으로 쫓겨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광야를 빨리 통과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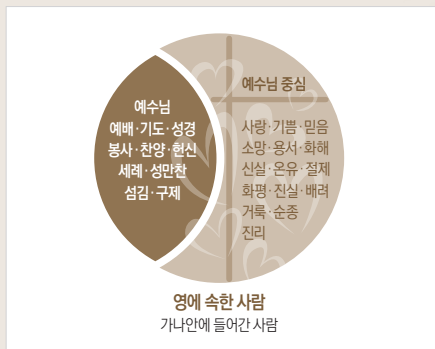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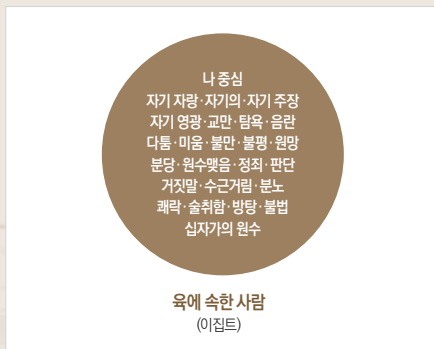



도표 5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며 그 가나안은 이집트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 것이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와 똑같이 살았다. 이집트에서와 똑같이 죄를 짓고 이집트에서와 똑같이 우상을 섬겼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거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셨던 것이다(도표 4, 5 참조).

바울은 교회 안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

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음을 한탄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한국교회사 66가지 명장면들!

05. 복음선(福音船)과 섬 선교

목포 지역의 초기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도서 지역 선교였다. 이 지역에는 200개가 넘는 섬과 그곳에 사는 20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교통이 좋지 않아서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곳 선교에 본격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맹현리(H.D McCallie) 목사였다.



맹 목사는 돛단배 한 척을 전세 내어 1전 씩 하는 쪽복음과 수천 장의 전도지를 싣고 요리사, 언어 선생, 몇 명의 매서인(전도하면서 책을 파는 사람들)들을 데리고 조수의 흐름을 따라 섬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 기간은 2주에서 6주 동안으로 다양했다.

맹 목사의 복음선(福音船)은 수많은 섬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섬사람들에게 맹 목사는 최초의 서양인이었으며, 그가 전하는 복음 역시 난생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맹 목사를 보고 도망쳤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찾아와 복음을 들었다. 맹 목사가 목포로 돌아올 때는 배에는 쪽복음이 사라지고, 대신 그것을 판 대가로 받은 물고기, 계란, 병아리가 가득 실려 있었다.

1909년 9월 어느 날 맹현리 목사가 거문도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득 모였다. 섬사람들은 매우 점잖았으며 지성적으로 보였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편집자주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를 빛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맹 목사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이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사실 이곳 사람들은 육지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으며, 선교사들이 자기들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 주기를 바랐다. 맹 목사의 전도를 들은 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맹 목사는 이들을 지도할 사람을 남겨 놓을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이들은 맹 목사에게 사람들을 보냈다.

“선교사님, 저희에게는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자 한 사람을 거문도로 파송하여 주십시오.”

같은 해 겨울, 그 마을 사람들 9명이 광주에서 열린 10일 사경회에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480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서 왔다.

맹현리 목사는 그 다음 해 5월에 이곳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때 이곳에서는 20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맹 목사는 이때부터 이곳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파송하여 그들의 신앙을 돕도록 하였다.

거문도를 방문한 지 만 2년 후, 거문도 신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건물을 지었고, 이곳에서 23명이 세례를 받았다. 전라남도의 섬에서도 복음을 향한 갈망의 물결들이 강하게 타고르고 있었다. 



유성준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11

세이비어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메뉴얼 3

2. 카이로스 프로그램/노숙자병원과 연관된 재활 프로그램

1992년, 노숙자 병원인 “그리스도의 집”은 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한 “카이로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첫 4년 동안, “카이로스 프로그램”은 근처에 거주처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집”의 예전 노숙인 환자였던 이들에게 제공되었다. 그들은 함께 만나 자원봉사를 하고 다른 체계적인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카이로스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발전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의 집” 리더들은 한 아파트를 구매하여 영구적인 거주 지원 시설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카이로스 프로그램”은 영적인 회복 프로그램으로 “카이로스의 집”은 회복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시설을 조성한다는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카이로스 프로그램” 참가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만성 질환으로 인해 정규직을 가질 수 없다. 자원봉사는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며, 각 구성원들은 그의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봉사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집” 환자들을 진료 예약으로



안내하고, 세탁실과 부엌에서 일하고, 우편물 발송과 다른 행정 활동을 돕는다. 일부 참가자들은 “그리스도의 집”이나 근처에서 시간제로 일을 한다.

“카이로스의 집”은 1996년에 프로그램 회원들을 위한 영구 주거시설로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37명의 거주자와 3명의 직원을 위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 있다. “카이로스 프로그램”의 입증된 성공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집” 이사회는 이전에 노숙자였던 사람들은 더 섬길 수 있도록 15채의 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2009년 10월에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 12월에 입주했다.

■ 개인 자원봉사자들

“그리스도의 집”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자원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집”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이다. 그들은 개인 또는 단체로 세계 전역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집”에서 봉사의 시간을 나눈다.

아래에 소개하는 봉사 분야 중 개인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리스도의 집”에 단체로 시간을 기부할 때는 자원봉사 지원서를 작성한다. 지원서가 제출되면, 자원봉사 부서가 연락을 취하며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이전에 짧은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화/목/토요일에 월 3회 진행된다.

■ 자원봉사 기회

- 전화 자원봉사: 전화 자원봉사자들은 전화 응답을 하고, 관련 통화를 해당 부서에 연결하며, 저녁과 주말 동안 간호사실의 출입을 관리한다. 이 역할은 치료소 직원들과 함께 환자들을 맞이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이 자원봉사는 한 달에 최소 두 번은 할 수 있다.
- 봉사 내용: 전화 응답, 안전한 출입 관리, 환자의 문의를 진료 직원에게 연결
- 위치: “그리스의 집” 이층 간호사실
- 일정: 월~금, 6:00~8:00pm, 토~일, 7:00am~7:00pm (2~3시간마다 교대)
- 자격: 최소한 15세 이상,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에 편해야 하고 비밀 유지 가능자

■ 음식 서비스 자원봉사자

- 음식 서비스 자원봉사자는 조리 준비, 서빙, 청소를 일주일 또는 2주 기준으로 돕는다.
- 봉사 내용: 식사 준비, 서빙, 청소를 도움
 - 위치: “그리스도의 집” 부엌과 식당
 - 일정: 아침: 7~9am, 점심: 11am~1pm, 저녁: 5~7pm
 - 주의 사항: 주말에는 음식 자원봉사 기회가 매우 적다.
 - 자격: 최소한 16세 이상

■ 환자 동행 자원봉사자

환자 동행 자원봉사자는 환자들의 의료 예약에 동행한다. 봉사자들은 의사 진료 시간 동안 봉사가 가능해야 한다. 봉사자는 환자들의 안전을 확실히 하고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에 조력이 필요하거나 글을 읽을 수 없는 환자들을 지원한다. 시력, 청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돕는다. 메모를 하고 메시지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교통수단은 “그리스도의 집”에서 제공한다.

- 봉사 내용: 환자들을 진료 예약에 동행하고 필요한 다른 조력을 제공
- 위치: “그리스도의 집”에서 시작해서 끝남. 봉사자는 환자와 운전자를 “그리스도의 집”에서 만나고, 예정된 예약으로 환자와 동행하고, 환자와 운전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집”으로 돌아옴.
- 일정: 이른 오전, 월~금, 3시간마다 교대
- 자격: 일반 병원 영업시간 동안 시간을 내야 하고, 독립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이 편해야 하고, 비밀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3. 데이스프링 침묵기도 수양관 (Dayspring Retreat Center)

데이스프링 침묵기도 수양관은 초교파적인 침묵기도 수양관으로 침묵, 고독, 삶의 돌아봄, 그리고 기도를 위한 신성한 장소이다. 210 에이커(약 26만 평)의 구름진 숲과 들판에서 오솔길을 거닐고 시냇물과 연못에 머물고 그늘 속 벤치에서 쉬고 돌로 된 미로들을 걸을 수 있다.

두 동의 건물은 침묵의 장소를 찾는 모든 이를 환영한다.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The Lodge 건물”은 벽난로와 작은 서재가 있는 아름다운 거실과 부엌과 식당이 있다. 숲에 자리 잡은 “The Inn 건물”에는 침대, 의자, 탁자와 싱크대가 있는 18개의 개별 방이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이비어 교회는 1953년에 현재 데이스프링 부지를 수양관을 위해서 구매했다. 적은 그러나 매우 헌신적인 신자들은 1956년 봉헌된 “The Lodge of the Carpenter”를 건축하는데 함께 주말을 보냈다. 몇 년 후에 “The Inn 건물”이 완공되었고 침묵기도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데이스프링 수양관은 70여 년이 되었고 이 건물의 벽과 땅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스며있는 곳이다.

이 수양관은 이제 데이스프링 부지에 위치한 세이비어교회의 전통을 이은 신앙공동체인 “데이스프링 교회”의 사역이 되었다. 이 수양관은 흩어져 있는 다른 세이비어

교회 신앙공동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데이스프링 교회는 활기 넘치는 여러 공동체들 중 하나이다.

데이스프링에서의 수양은 침묵의 시간이고 내면과 외면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과 기도와 사색의 시간과 공간을 너무 적게 공급한다. 수양관에서의 침묵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 하는 다른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엘리자베스 오코너 (Elizabeth O'Connor)가 그의 저서 “헌신에로의 부름”에서 말했듯이, “데이스프링은 각 사람이 혼자되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곳”이다.

침묵 수양은 회의, 강의, 계획된 수업 등의 다른 모임과 매우 다르다. 침묵 수양은 참여자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데이스프링은 메릴랜드의 나지막한 구릉들이 있는 210 에이커(약 257,077평)의 크기이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일상에서 객관적이며 시도하는 것들이 뜻대로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데이스프링에서는 심지어 그런 시도조차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데이스프링을 사랑한다. 그 숲과 들판, 오솔길과 조용한 장소들, 넉넉히 뻗은 길들,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명상하도록 하고, 심지어 신비주의적 삶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 (Elizabeth O'Connor, 헌신에로의 부름, 1963 중에서)


세이비어교회가 이 농장을 처음 구매한 후(나중에 몇 에이커를 추가 구매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데이스프링은 모두를 사색하도록 만든다. 때에 따라서는 이 들판에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지금은 보호구역으로 오래된 농장의 밭이 동지를 트는 새들과 다른 야생동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역들이 이 신성한 땅에서 진행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 지어진 침묵기도 수양관의 “Lodge”와 “Inn” 건물은 영혼과 영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인 침묵을 제공하고 있다.

“The Wellspring Conference Center”는 1973년에 건립해 회의와 침묵수양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이 아름다운 본부 컨퍼런스 센터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창문이 있어 주변의 숲과 들판을 안으로 이어주며, 장작나무 난로가 있는 돌로 된 벽난로가 있고 아치형 천장이 있다. 세 채의 시골풍의 오두막은 최대 50명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데이스프링 수양관 입구에 있는 한 농가 건물은 데이스프링 교회의 본부이다. 이 교회는 널리 인정받은 교회 갱신의 모델이 된 세이비어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데이스프링 교회는 기도의 깊은 삶과 세상에 대한 능동적인 사명과 예언적인 증거가 결합된 독립적인 신앙 공동체이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십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도 감사

김태훈 권사_뉴저지연합교회

지금 생각해 보면, 몇 년 전 앓았던 좌골 신경통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그 기간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계속된 통증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20파운드 이상 체중이 줄고, 걷기도,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누워있기도 힘들었던 그때의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나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게 했던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허리를 펴 수조차 없어서 침을 맞기로 결심하고 아픈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엎드려서 십여 차례 침으로 찔리는 고통을 참는 일도 그리 쉬운 건 아니더군요. 그 주, 금오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드리고 싶은

데 일어날 때 느낄 통증의 고통이 두려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감은 눈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겹쳐져 대못으로 박힌 참담한 주님의 두발을 보이셨습니다.


울컥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참다, 결국 터져버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나로 인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2년의 고통의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긴 현대인의 병이, 앓았다 일어날 때 신경이 눌려 느껴지는 통증이, 십여 방의 침 바늘의 찔림이, 그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과연 죄 없는 이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고통보다 더 할까요?

나는 고통받아 씁니다. 그 체험 이후, 꾸준한 치료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의 은혜로 아픈 곳은 다 나아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고난 주간 때마다, 또 간혹 몸이 아플 적마다, 기도 중 보여주신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보혈의 두발을 떠올립니다.

작년 초 시작되어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이 Covid-19 대 환란의 시간을 겪으며 2021년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습니다.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겹쳐져 못 박힌 두 발아래로 주님의 보혈이 흘러 그 아래 흐르던 내 영혼을 덮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더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한 눈과 마음을 허락하신 예수 보혈의 그 은혜의 삶이 그저 감동이며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식구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이들,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아이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살아갈 의욕을 잃은 이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살고 있는 이들.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로 이 모든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 크신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 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이 환란도 예수님과 함께 이깁니다. 

베드로전서 2:21-25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최동욱 권사_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한 도시,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마비가 되다니!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는 엉망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 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뉴스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들의 죄악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보다 더욱 악한 죄악을 짓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시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 못하도록 합리화시키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 깨달아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날마다 새벽기도 예배가 6시에 있

어서, 특히 작년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집을 방문해서 기도하며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사순절 40일 특별새벽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배우는데 귀하신 감리교회 목사님들(40명)을 통해 날마다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 팬데믹으로 불안한 가운데에서 심판과 은혜의 통로를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이 권능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어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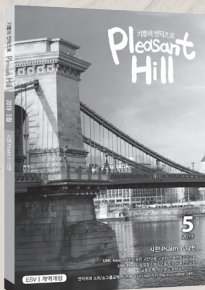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옥,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웅,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욱, 323-382-0691)
벤나이스연합감리교회(이상호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안정선,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949-786-8354)
언약교회(최요셉,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성,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김태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 858-354-0009)
히스패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황,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운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대호, 203-387-1579)
새생명교회(최동현, 203-340-1236)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성,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근, 678-431-7924)
해밀턴말한인교회(정찬웅,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이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원홍연,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조재연, 617-678-5815)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근, 219-765-1379)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박관우, 639-730-1887)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한상훈, 773-319-8005)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행,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턴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자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용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이길표,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오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다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네바다 주)**

거자씨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용,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진,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문정용, 732-613-4930)
그레이크스펠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호,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이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반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김영식)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마목교회(이용보,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최현덕,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테이트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신승호,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라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오하이오 주)**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 (440-845-1728)
한인메디슨빌연합감리교회 (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광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 (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 (윤갑수,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 (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 (홍정균, 215-542-5686)
필라델피아교회 (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 (신규석, 864-567-3633)
찰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 (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인교회 (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건, 214-901-1116)
뉴게이트교회 (GMC 소정일, 254-526-3993)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 (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 (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 (박경원)
러브연합감리교회 (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 (박정수, 409-554-0550)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 (오요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 (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 (주요한, 972-276-2098)

웨이쿠즈님의교회 (GMC 김주일,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 (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 (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 (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성,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홍성욱, 757-484-5988)
새빛교회 (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 (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 (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 (강현식, 703-336-3679)
엘마오연합감리교회 (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의교회 (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 (정성호, 571-401-3872)
와싱턴한인교회 (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 (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 (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 (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 (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 (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이대규, 262-658-1131)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 (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 (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3/01			2023/02			2023/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1
02	에베소서	1	02		2	02		2
03		2	03		3	03		3
04		3	04		4	04		4-5
05		4	05		주일	05		주일
06		5	06		5	06		6-7
07		6	07		6	07		8
08		주일	08		7	08		9
09	갈라디아서	1	09		8	09		10
10		2	10		9	10		11
11		3	11		10	11		12
12		4	12		주일	12		주일
13		5	13		11	13		13
14		6	14		12	14		14
15		주일	15		13	15		15
16	빌립보서	1	16		14	16		16
17		2	17		15	17		17
18		3	18		16	18		18
19		4	19		주일	19		주일
20	골로새서	1	20		17-18	20		19
21		2	21		19	21		20
22		주일	22		20	22		21-22
23		3	23		21	23		23
24		4	24	룻기	1	24		24
25	데살로니가전서	1	25		2	25		25
26		2	26		주일	26		주일
27		3	27		3	27		26
28		4-5	28		4	28		27:1-28:2
29		주일				29		28:3-29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30
31		3				31		31

2023/04			2023/05			2023/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고난주간	02		2	02		2-3
03		H-1	03		3	03		4-5
04		H-2	04		4	04		주일
05		H-3	05		5	05		6-7
06		H-4	06		6	06		8
07		H-5	07		주일	07		9-10
08		H-6	08		7	08		11
09	부활절	주일	09		8	09		12-14
10		2	10		9	10		15-17
11		3-4	11		10	11		주일
12		5	12		11	12		18-19
13		6	13		12	13		20-21
14		7	14		주일	14		22
15		8-9	15	호세아	1	15		23-24
16		주일	16		2:1-13	16		25-26
17		10	17		2:14-23	17		27
18		11	18		3	18		주일
19		12	19		4	19		28
20		13	20		5	20		29-30
21		14	21		주일	21		31
22		15-16	22		6	22		32
23		주일	23		7	23		33-34
24		17	24		8	24		35-36
25		18	25		9	25		주일
26		19	26		10	26		37
27		20-21	27		11	27		38-39
28		22	28		주일	28		40
29		23-24	29		12	29		41
30		주일	30		13	30		42
			31		14			

2023/07			2023/08			2023/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2	01	역대하	5	01	사도행전	1
02		주일	02		6	02		2
03		3-4	03		7	03		주일
04		5-6	04		8-9	04		3
05		7-9	05		10-11	05		4
06		10	06		주일	06		5
07		11	07		12	07		6-7
08		12	08		13	08		8
09		주일	09		14	09		9
10		13	10		15	10		주일
11		14	11		16	11		10
12		15	12		17	12		11
13		16	13		주일	13		12
14		17	14		18-19	14		13
15		18	15		20	15		14
16		주일	16		21-22	16		15
17		19	17		23	17		주일
18		20	18		24	18		16
19		21	19		25	19		17
20		22	20		주일	20		18
21		23	21		26	21		19
22		24-25	22		27-28	22		20
23		주일	23		29	23		21
24		26-27	24		30	24		주일
25		28	25		31	25		22
26		29	26		32	26		23
27	역대하	1	27		주일	27		24
28		2	28		33	28		25-26
29		3	29		34	29		27
30		주일	30		35	30		28
31		4	31		36			

2023/10			2023/11			2023/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주일	01	예레미야	29	01	요한복음	1
02		1	02		30	02		2
03		2	03		31	03		주일
04		3	04		32	04		3
05		4	05		주일	05		4
06		5	06		33	06		5
07		6	07		34	07		6
08		주일	08		35	08		7
09		7	09		36	09		8
10		8-9	10		37	10		주일
11		10	11		38	11		9
12		11	12		주일	12		10
13		12	13		39	13		11
14		13	14		40-41	14		12
15		주일	15		42	15		13
16		14	16		43	16		14
17		15	17		44-45	17		주일
18		16	18		46-47	18		C-1
19		17	19		주일	19		C-2
20		18	20		48	20		C-3
21		19-20	21		49	21		C-4
22		주일	22		50	22		C-5
23		21	23		51	23		C-6
24		22	24		52	24		주일
25		23	25	예레미야애가	1	25		15
26		24	26		주일	26		16
27		25	27		2	27		17
28		26	28		3	28		18
29		주일	29		4	29		19
30		27	30		5	30		20
31		28				31		21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박효연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운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조기현,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조속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562-944-5344 (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배연택 목사 (찰스톤연합감리교회, SC)

❖ 주일 칼럼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서울)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NY)
이준협 목사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GA)
장재웅 목사 (하늘비전교회, MD)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 1976, 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